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강 수 진

2023년 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주 경

강 수 진

이 논문을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강수진의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강 영훈 인

위 원 김 형 아 인

위 원 김 주 경 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22년 1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Factor Analysis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 Focusing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itizens -

SuJin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JuKyong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2022.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Young Hoon Kang

HyoungAh Kim

JuKyong Kim

Dat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1. 연구의 내용 ····· 4

2. 연구의 방법 ····· 4

3. 연구의 흐름도 ····· 5

제2장 이론적 논의 ····· 6

제1절 갈등에 대한 논의 ····· 6

1. 갈등의 개념 ····· 6

2. 갈등의 유형 ····· 11

2. 갈등의 특징 ····· 13

제2절 세대 간 갈등에 대한 논의 ····· 17

1. 세대의 개념 ····· 17

2. 세대 간 갈등의 개념 ····· 20

3. 세대 간 갈등의 원인 ····· 21

4. 세대 간 갈등에 관한 이론 ····· 27

제3절 세대 간 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 36

1. 사회적 요인 ····· 36

2. 사회신뢰 요인 ····· 36

3. 경제적 요인 ····· 38

4. 환경적 요인 ····· 38

5. 정치적 요인 ····· 3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39

제3장 연구의 설계 ····· 44

제1절 연구모형 ····· 44

1. 분석모형의 설정 ····· 44

2. 조사대상 및 표본의 특성 ····· 4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2절 측정도구 및 기술통계 ····· 46
1. 측정도구 및 분석변수 설정 ····· 46
2. 기술통계 분석 ····· 47
제4장 실증분석 ····· 52
제1절 신뢰도 및 타당성 검토 ····· 52
1. 신뢰도 검증 ····· 52
2.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 53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 55
제2절 다중회귀 분석 ····· 56
제5장 결 론 ····· 58
제1절 연구의 요약 ····· 58
제2절 정책제언 ····· 58

참 고 문 헌 ····· 61

ABSTRACT ····· 7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목 차

[표 2-1] 선행연구 요약 ····· 43
[표 3-1] 설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45
[표 3-2] 측정항목 및 참고문헌 ····· 46
[표 3-3] '세대 간 갈등 인식' 설문 분석 결과 ····· 48
[표 3-4] '사회적 요인' 설문 분석 결과 ····· 48
[표 3-5] '사회신뢰 요인' 설문 분석 결과 ····· 49
[표 3-6] '경제적 요인' 설문 분석 결과 ····· 49
[표 3-7] '환경적 요인' 설문 분석 결과 ····· 50
[표 3-8] '정치적 요인' 설문 분석 결과 ····· 51
[표 4-1] 신뢰도 검증 결과 ····· 53
[표 4-2] 측정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53
[표 4-3] 측정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 55
[표 4-4] 다중회귀분석 결과 ····· 5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 5
[그림 3-1] 연구모형의 설정 ····· 4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 문 초 록

한국 사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정치·경제·사회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고, 그 결과 고도의 경제적 압축 성장을 이룬 반면 '불평등'과 '공정성'에 관련한 사회갈등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세대가 출현하게 되었고, 사회문제에 대하여 각 세대가 가치관, 생활양식, 이해관계 등에 따라 응집하는 정도의 차이로 사회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기도, 사회갈등으로 심화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코로나 19라는 예기치 못한 현상을 경험하며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양산했다. 개인의 영역에서부터 국가의 영역까지 사회문제를 둘러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세대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대 간 갈등'으로 심화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 이면에 감춰진 사회문제뿐 아니라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 코로나 19 팬데믹까지 경험하면서 산업구조, 국가관 내지 개인의 가치관 등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를 두 번째로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시대적 상황에 주목하며, 기성세대부터 MZ세대 등 여러 세대들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대척점을 두고 있을지라도 오늘날 '성장의 지체'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공동 운명체'임을 상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으로는 독립변수로 '사회적 요인', '사회신뢰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치적 요인'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세대 간 갈등 인식'을 설정하고 다중회귀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에서 경제적 요인이 세대 간 갈등 인식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신뢰요인은 세대 간 갈등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 간 갈등을 완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세대, 세대 차이, 세대 간 갈등, 사회갈등, 고령화, 사회통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 사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정치·경제·사회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일제 식민통치를 시작으로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군부 독재정치와 경제성장, 민주화 운동,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문화 발현, 대통령 탄핵 등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의 사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고도의 경제적 압축성장을 이룬 반면, '불평등'과 '공정성'에 관련한 사회갈등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처음에는 계급 또는 성(性)에 기인한 '불평등', '불공정' 관련 사회갈등을 주로 다루었으나, 1990년대부터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축으로 '세대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다(한완상, 1991; 함인희, 2013).

사회적 격변으로 촉진된 사회 구조적 변화의 흐름에서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특유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의식과 행위양식을 갖춘 '세대'가 다양하게 등장했다. 여기서 '세대'는 차이를 내재한 무형의 개념으로, 세대 그 자체가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실체적 집단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Mannheim, 1952). 오늘날 민주주의 다양성 실현과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의 공존이 필요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세대마다 사회문화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가치관,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과 행동양식이 다양하므로 '세대 간 차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사회변동의 속도가 빨랐고, 변화의 폭 또한 컸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조성남·박숙미,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0년~2016년에 실시한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세대 간 갈등이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은 2010년 49.1%에서 2016년 59.6%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사회 현상으로부터 '세대 간 갈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은 수준임을 알려주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점이라 볼 수 있겠다(정해식 외, 2018; 남궁은하,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갈등 사례가 많으며, 갈등의 정도도 심각한 지역이다. 제주를 환경, 평화, 국제도시라는 명목으로 국책사업의 선정지역으로 거론하고 실행에 착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다. 왜냐하면 도민 사이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사업의 규모나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주 제2공항 사업,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사업 등이 내부적으로 도민 갈등이 발생한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이외에도 행정시 간 지역 갈등부터 환경보전과 개발의 문제, 혐오시설 입지 선정 등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이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갈등이 세대 현상과 맞물려 도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연령구조의 급격한 변화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12년 1.3명보다 37% 감소하였고(통계청, 2021), 2022년 고령자 통계(통계청, 2022)에 따르면, 2022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로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넘었으며, 이와 같은 추세로는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세대문제'가 결합할 때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특히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에서 그 양상이 뚜렷해진다. 예를 들어, 노인 부양부담, 청년과 노인 일자리 부족 문제, 국민연금 고갈 등이 세대 간 갈등으로 나타나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제반 사안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정부정책 개입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문제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사회갈등 현상에 맞물려 있는 '세대 간 갈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갈등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대 간 갈등 인식의 차이가 '나'와는 '다른' 세대에 대한 혐오와 불신 상황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부터 MZ세대 등 여러 세대들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을지라도 인구구조의 고령화, 코로나19 팬데믹, 산업구조의 변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등 오늘날 ‘성장의 지체’를 동시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공동 운명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조성남・박숙미, 2002). 지속가능한 성장을 국가적 과제로 선정한 현 시점에서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는 요인인 ‘세대 간 갈등’을 본 연구의 주제어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변모하면서 발생하는 세대 간 차이 및 갈등의 지점이 다극화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 작업은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을 위해 세대 간 갈등 현상을 바라보는 사회구성원의 인식 수준을 분석하여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간 기존 세대 간 갈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조직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을 주로 다루었다. 다시 말해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세대 간 갈등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요인, 사회 신뢰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치적 요인으로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최근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이주민의 유입이 많아져 도민의 인구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의 선정지역으로 환경갈등, 지역갈등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세대 간 갈등을 조사하고 분석하기에 적합한 연구대상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흐름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갈등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갈등에 대한 논의와 세대 간 갈등에 대한 논의를 구분하여 각각의 개념, 유형, 특징, 이론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세대 간 갈등에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측정도구 및 분석변수 설정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4장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증분석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5장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제주도민이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제주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도민 통합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제언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구성원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갈등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갈등의 유형 중 특히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이론적 정의 및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셋째,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실증분석 모형을 설계하고 제주도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넷째,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 논의 및 실증분석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을 통해 갈등의 개념, 갈등의 유형, 갈등의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세대 간 갈등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의 분석과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대 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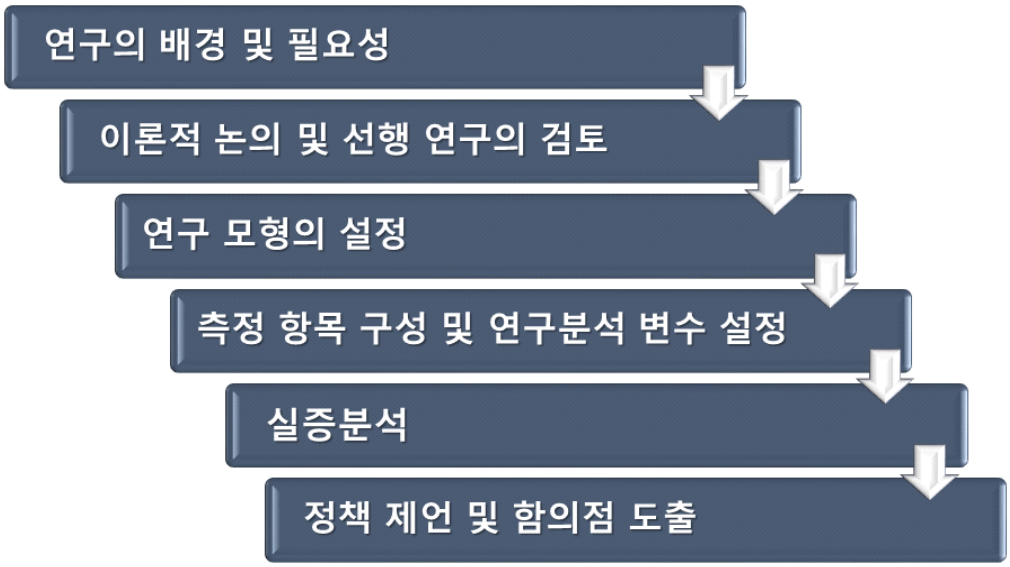
둘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세대 간 갈등 인식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분함으로써 향후 세대 간 갈등을 완화시키고 사화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사회적 요인, 사회신뢰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치적 요인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세대 간 갈등 인식을 활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연령과 성별 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3. 연구의 흐름도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갈등에 대한 논의

1. 갈등의 개념

사회화 학습의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기 내면, 타인, 법과 제도,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등을 고려하여 삶의 기준점을 결정하며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개인, 집단에서는 어떠한 유형에 상관없이 갈등 현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갈등의 결과물로 어떠한 행위의 동력을 얻거나 잃기도 한다. *Hobbes(1651)*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 존재이며, 자기 보호를 최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적인 상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자기 보호를 위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홉스의 인간관을 비추어 생각해본다면 복잡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갈등'은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갈등의 통합 또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산재해 있는 갈등의 본질에 대해 개념적 또는 이론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동·서양적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학문 분야별로 갈등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알아보겠다.

갈등의 동·서양적 어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동양적 의미로 갈등(葛藤)은[1] 칡과 등나무란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모습을 비유한 것처럼 개인 또는 집단 사이에 의견, 행위, 가치관, 목표 등이 달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서양적 의미로 갈등(Conflict)은 서로 부딪치거나 때리는 상황을 형상화한 것으로 서로 간 대립 또는 물리적 충돌의 의미로 볼 수 있다(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1) 네이버 국어사전 참고. http://ko.dict.naver.com (2022년 5월 12일 접속)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인 의미를 고려하였을 때, 동양의 경우에는 내면의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서양의 경우에는 외면의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강응만, 2012).

이와 같이 동·서양적 어원을 종합하여 갈등을 개념화한다면 '나'와 다름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형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갈등 현상은 단조로운 삶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으며, 원만하게 갈등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이라는 국익에 저해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갈등에 대한 학문 연구에서도 초기 연구의 경우, 갈등을 표면상 충돌 또는 이해관계의 다툼 정도로 단순 정의하였으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회에서의 갈등 양상들이 다차원적으로 보이고 있어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행정학(정책학),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갈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주된 연구 주제로 설정하여 논의해오고 있다. 학문분야별 관점에서 갈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행정학(정책학)에서 갈등은 행위 주체가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최적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양립 불가능한 선택적 충돌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즉 갈등의 주된 양상이 명예 또는 권력의 획득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어떠한 이익이나 손해를 고려한 희소가치의 배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책결정에서 개인, 집단 등 상호 간에 나타나는 대립적 상호작용과 다양한 집단들 간의 경쟁적인 투쟁의 상태를 의미한다(Duncan, 1981; 강응만, 2012).

두 번째, 심리학에서는 자기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적 수준에서 갈등을 논하며, '동시에 해결하기 힘든 둘 또는 그 이상의 강한 동기 유발'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Thomas, 1976). 다시 말해,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갈등 양상은 행위자가 상반된 두 개의 대안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한 가지를 선택할 때 경험하는 심리상태로(Whittaker, 1966; 박호숙, 2000), 개인 내면의 양립할 수 없는 정신적, 행동적 양상(Thomas & Chumidt, 1976)을 갈등이라 보았다. 갈등상황에서 표면적으로 도출되지 않아 행위자가 인지하거나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있으나, 대립각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선택적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한다(이영봉, 2012). 심리학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관심으로 인한 태도 또는 결정이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성향이나 사회적 관계 등의 요인에 따라 갈등의 대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Lewin(1948)은 인간의 행위는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되어 결정되므로 갈등의 발현 또한 심리적 요소가 주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갈등을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세력이 동시 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식했다. Freud(1938)는 모든 인간에게는 적대적인 본능이 의식하지 않아도 늘 있다고 보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은 정신적인 갈등 상황에 자주 처해있으며, 동시에 선택할 수 없는 동기의 유발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세 번째로 경제학에서는 갈등 현상을 자본, 에너지원 등과 같은 희소자원을 경쟁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 볼 수 있겠다(이영봉, 2012). 즉, 갈등 현상의 문제를 희소자원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생산과 배분으로 보고 있으며(Gilbert & Palmer, 1974),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그 적용범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번째로 사회학 영역에서의 갈등을 논해보고자 한다. 갈등 현상이 점차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왔다.

사회학 영역의 관점에서 갈등은 사회 전반 모든 영역에 대한 조직·계층 간의 상호작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사회적 갈등(social conflict)을 권력, 가치, 지위 등의 희소자원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현상이라 보면서, 상대방의 집단을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Gilbert& Palmer, 1974). Dahrendorf(1958)는 갈등을 사회 세력 내 집단 간 표면상의 충돌뿐만 아니라 긴장, 논쟁, 경쟁, 싸움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최초로 갈등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모든 사회는 항상 사회적 갈등을 경험한다”고 말하며, 갈등현상을 거시적인 개념으로 바라봤다. 이처럼 ‘모든’이란 것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사회학에서의 갈등이란 연구 주제가 포괄적인 연구 방향 설정이 가능해지므로 갈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국내에서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갈등 현상을 연구한 결과물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많으며, 국내 연구자들이 정립한 갈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박호숙(2000)은 Pondy(1967)의 보편·통합 이론을 차용하여 갈등의 정의를 정리하였다. 갈등을 개인 간 심리적 대립감과 대척점을 갖는 행동을 포함하는 동태적 과정으로 보았으며, 갈등 개념으로 선행조건(제한된 자원, 정책 지지의 차이), 당사자들의 정서적 상태, 인지적 상태, 수동적 저항을 포함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난 공격행위 등 전체적인 과정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했다. 강영진(2000)은 '양립불가능한 목표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다. 나태준, 박재희(2004)는 권력, 신분 등 희소성이 있는 가치를 얻기 위해 상대측을 제거하려는 일련의 행위 즉, 개인 또는 집단이 상호간에 희소 자원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투쟁을 사회적 갈등으로 보았다. 권중섭(2013)은 불안, 분노 등의 감정 또는 정서적인 내적 반응과 외적 표출 행위에는 상호작용의 역동적 과정을 거치면서 복합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갈등의 유발은 그 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정주진(2016)은 '양립할 수 없는 목표, 충분하지 않은 자원에 대한 대립적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방해가 된다고 여길 때 발생하는 다툼'이라고 정의했다. 류영국(1993)은 갈등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공통화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 갈등은 두 명 이상의 갈등주체 사이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갈등주체는 개인, 집단, 조직일 수 있으며, 갈등주체의 형성은 주체 안에서 다양해질 수 있다. 갈등을 사회적 관계 형성의 결과물이라고 볼 때, 갈등의 발현은 필연적으로 두 명 이상의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갈등은 일반적으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한 후 적대감을 드러낸다. 심리요소와 행동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동태적인 과정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세 번째, 갈등은 밖으로 표출되어가는 상호 대립적 행동이다. 당사자들이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긴장, 적대감 등을 느끼는 것을 시작으로 이미 갈등이 발현됐다고 보아야 한다. 네 번째, 갈등은 지각되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갈등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면 알지 갈등이 야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갈등은 복잡한 역동적 과정(dynamic process)이다. 갈등에는 불안 등의 심리적인 것에서부터 표출행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발현될 수 있다. 여섯 번째, 갈등은 동전의 양면처럼 사회통합에 유익한 것 일수도 있고, 해로운 것일 수도 있다. 갈등이 심화되면 사회통합에 저해되는 요소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될 수가 있지만 긴장감 있는 정도의 갈등은 경쟁심을 유발하여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갈등의 발현에는 반드시 원인 및 이유가 존재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현될 잠재성이 높으나, 그 잠재성을 표출하기 위한 일정한 조건이 부여될 때 갈등이라는 하나의 현상이 드러날 것이다.

이상으로 갈등에 대하여 행정학, 정책학,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분야를 망라하여 많은 선행연구자들의 각각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하였다. 갈등의 정의를 내릴 때 공통 요인은 “양립불가능한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충돌 내지 다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구길두, 2021). Giddens(2006) 역시 갈등이란 하나의 현상이 저절로 형성된 것이 아닌, 사회적 관계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변화 내지 발전하고자 하는 당사자(개인, 집단) 간 대립, 경쟁 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앞으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첫 번째, 갈등 현상 자체를 이해하고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한 부분으로 ‘양립불가성(incompatibility)’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양립불가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적절한 정책을 통한 조정과 중재, 그리고 집단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구길두, 2021). 두 번째, 학문별 갈등현상에 대한 견해도 시대와 세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갈등론자들이 갈등을 충돌과 분열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면, 1940년대 이후에 행동주의과학자들은 갈등을 사회의 발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기본적으로 갈등의 발현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이기에 갈등을 인위적으로 없애고자 한다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은 제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상호작용론에 의거하여 조직적 차원에서 갈등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즉, 갈등수준의 정도가 너무 낮거나 혹은 높으면 역기능으로 발현될 수 있으나, 갈등의 정도가 최적화된 수준을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면 순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태홍, 2005; 이준용, 201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갈등의 유형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문화적·역사적 경험으로 형성된 가치관 내지 생활양식에 따라 갈등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경험한 사건들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며, 급변적인 산물이 많다. 이에 갈등의 수준이 개인갈등의 영역에서 벗어나 해결점을 찾지 못할 정도로 심화되어 사회문제·공공문제(정책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갈등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사회갈등의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연구관점이 개인 영역에서의 갈등 문제보다는 집단화되어 나타나는 갈등 문제인 사회갈등과 정부의 개입과 관련이 있는 공공갈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김대중, 2019).

갈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우리사회의 주요 5가지 갈등 유형을 세대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으로 보고 있다.(송복, 1997; 이재광, 2013; 이준용, 2015). 최근에는 일자리 갈등, 환경 갈등, 디지털 갈등 등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김종길, 2005; 이준용, 2015).

한국행정연구원(2018)의 갈등사례DB 분류 기준에 따르면, 갈등의 유형을 이익갈등, 가치갈등, 이익-가치갈등, 기타갈등으로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환경·개발·에너지·국방·교통·문화·체육·보건복지·교육·행정으로 갈등을 유형화하였다(김대중, 오영석, 왕서정, 2018).

이처럼 갈등의 유형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기술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갈등 연구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위해 갈등 주체, 갈등의 원인에 따라 갈등 현상을 유형화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주체에 따른 갈등 유형

주체에 따른 갈등 유형으로 개인 갈등, 집단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갈등은 개인 단위에서 촉발되는 갈등으로, 사소한 말다툼의 가벼운 대립적 행위부터 민·형사와 같은 법적 다툼의 형태로 나타난다(김대중, 2019). 이 과정에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당사자는 개인의 가치관, 신념 등의 내면적 요소를 고려하여 단 하나의 안을 선택해야 하지만(홍은호, 2019) 사회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단 갈등과는 차이를 보인다.

집단 갈등은 개인 사이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집단으로 확대되어 나타나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더욱이 자본주의 사회관계망에서는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갈등의 연속이며, 사회체제와 기능들은 조직적으로 갈등을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집단갈등 유형이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지역 갈등 등이 있다(이성록, 2007). 이러한 집단갈등은 결국 사회갈등, 공공갈등의 형태로 심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집단갈등과 사회갈등의 명확한 구분에 있어서 집단갈등을 사회갈등 또는 공공갈등으로 이해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Oberschall(1978)이 사회갈등을 사회라는 공간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입장과 특성을 가지는 집단 간에 벌어지는 충돌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집단갈등을 사회갈등의 동일선상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오늘날 사회갈등을 공공갈등 또는 정책갈등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공공갈등은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뿐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개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김대중, 오영석, 왕서정, 2018). 정책갈등의 정의에 있어서도 “공공부문을 통해 다루어지는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한 갈등”(Lan, 1997) 또는 “사회 전반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쟁점에 대한 갈등”을 의미한다(강영진, 2011).

2) 원인에 따른 갈등 유형

사회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김태홍 외(2005)는 갈등의 원인에 따른 갈등의 유형을 크게 이익갈등(욕구갈등)과 가치갈등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익갈등(욕구갈등)은 전반적으로 물질적인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생계형 갈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갈등으로 본다. 물질적인 욕구에 기인하여 일어나는 갈등이므로 이해관계 갈등, 사실관계 갈등, 구조적갈등, 상호관계갈등으로 구분한다. 이해관계측면에서 이익갈등은 개인 또는 집단의 욕구 차이에서 오는 즉 분배과정 및 분배결과에 대한 갈등을 의미 한다. 사실관계 측면에서의 이익갈등은 정보 또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학습의 부족으로 평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갈등이다. 구조적 측면에서의 이익갈등은 당사자가 외부 요인 즉 사회규범, 제도, 차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이다. 상호관계 측면에서의 이익갈등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역할, 책임, 권한 부여에 대한 이해관계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오늘날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적 부담 비용 발생,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가 이익갈등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치갈등은 가치관, 이념, 문화, 종교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 현상으로 서로 다른 경험과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갈등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김대중(2019)은 갈등의 원인을 3가지 영역별(정치이념적 이해관계・경제이념적 이해관계・지역이념적 이해관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치 이념적 이해관계 갈등의 유형이다. 보수와 진보의 정치성향에 기인한 갈등유형이다. 이 유형과 관련해서는 정치・남북・국방・외교 등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두 번째, 경제 이념적 이해관계 갈등의 유형이다. 경제적 분배 및 계층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 유형과 관련해서는 경제・복지・노사 등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세 번째 지역 이념적 이해관계 갈등의 유형이다. 주로 지역 사회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국가, 지자체의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갈등은 NIMBY, PIMPY처럼 지역 이기주의의 모습을 띈다. 이 유형과 관련해서는 개발 및 환경을 둘러싼 지역갈등과 에너지갈등이 발생한다.

3. 갈등의 특징

개인 또는 집단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동태적 과정, 갈등진행상황에 따라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개인의 어떠한 양심을 두고 한 갈등 현상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갈등의 모습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최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 행동주체가 둘 이상일 때, 갈등 교환 작용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행동주체는 개인, 집단, 조직 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체 간 갈등 교환의 형식이 다양할 수 있다(오석홍, 손태원, 하태권, 2002).

두 번째, 사회를 구성·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은 치열한 이해경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즉, 심리적 대립감과 대립적 행동을 내포하고 있는 동태적 과정의 갈등 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갈등 관계에 놓여진 사람들은 갈등 상황을 인지하는 지각 단계를 제일 먼저 경험하며, 긴장·불안·분노 등의 감정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향한 대립 또는 적대적 행동을 표출하는 단계로 나아간다(오석홍, 손태원, 하태권, 2002). 특히, 자신의 이해관계가 정책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있을 때, 갈등 당사자들 간에 치열한 투쟁 현상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정책결정은 갈등 당사자 간에 벌어지는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이득과 손해를 결정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방식을 요구한다면, 기존의 기득권층은 이를 철저하게 방어하거나 이해영역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한다. 양자 간에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 영역이 충돌되는 사이에는 치열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김영평, 1991).

세 번째, 갈등 현상은 역동성과 비일관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 상황, 조건 등은 유동적이어서 갈등이 해결되는 시점의 안정된 균형 상태에 다시 도달될 때까지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다. 비일관적이고 역동적인 진행과정을 거쳐 갈등 현상이 균형 상태를 찾으면 갈등 상황이 종결되는 듯하나, 다시 균형이 깨지게 되면 갈등이 재현된다. 갈등해결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규칙성과 일관성을 띄기는 어렵다. 갈등의 진행과정에서 무관심이나 회피와 같은 행동에서부터 싸움과 같은 폭력적 행동까지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나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갈등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림에 따라, 당사자들도 바뀔 수 있으며, 이들의 주장이나 이해관계의 영역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응만, 2012).

네 번째, 갈등의 양상이 높은 불확실성(uncertainty)을 내재하여 집단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갈등 상황에서는 당사자 간의 관계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양상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갈등의 속성인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갈등이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실제 갈등 상황보다 이를 더욱 심각하게 인지하는 경우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불확실성 증가'가 두드러질 때이다. 이에 갈등이 발생해서 더 큰 문제로 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접촉과 의사소통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 상황에 놓인 당사자는 상대방을 서로 적으로 생각하고 이겨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접점 형성이 되지 않아, 불신과 적대감이 증대되기도 한다. 이에 적자생존의 원칙처럼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해결방식에 있어 공격적·진단적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K. Holsti, 1977). 현재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층에 대하여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의 경우는 조정 또는 중재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기득권층은 그들의 변화가 정의롭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과격한 행위에 대하여 사회질서의 파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갈등 당사자들은 이해관계 영역 고착화와 변화에 대한 서로 다른 불만을 표출시키는 과정에서 이들 집단은 각기 응집성(cohesion)과 협력성(cooperation)으로 뭉쳐 집단화(集團化)의 경향을 보인다. 갈등상황에서의 집단화 현상은 불확실한 상황이 증가할 때 위험을 공유하며 세력이나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강응만, 2012). 결국, 불확실한 상황이란 것은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를 말하는 것인데, 정부의 정책과 집행이 반드시 적절하게 행해져야 하는 함의를 내포한다.

다섯 번째, 갈등현상 자체를 한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 또는 가치를 저해시키는 역기능적 측면으로 보기도 하며, 사회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기도 한다(오석홍, 손태원, 하태권, 2002).

특정 사회 또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 또는 가치를 저해시키는 것은 갈등의 역기능적 측면이다. 기능주의적 사회학은 갈등의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 사회가 구성하는데 있어 기존체제의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갈등 현상을 사회시스템을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갈등을 해결했을 때의 결과보다는 갈등의 존재 여부에 관심을 가지며 해결해야할 문제로만 받아들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체화와 조화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강조하는 권위주의와 비슷하다는 특징을 갖기도 하며(전영평 외, 2005), 갈등 현상들을 일방적으로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현실사회의 필연적인 갈등적 측면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종길, 2005).

반면 집단 또는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를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갈등 현상은 순기능적이며 건설적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Coser(1956)는 갈등이 사회에 대해 순기능적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집단결속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즉, 집단 또는 사회 시스템의 정체성 결여와 같은 위기를 겪었을 때, 갈등 현상 자체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집단의 결속의 강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갈등은 사회 보전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갈등 현상을 경험한 사회구성원들은 사회화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성원들은 갈등을 겪으며 규범, 제도 등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기존의 규칙들을 현실 상황에 맞게 변경하기도 한다. 네 번째,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만을 위한 독재사회가 될 가능성을 낮추게 해준다는 점이다.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의사결정 기능이 강화되어, 의사결정의 독점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사회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진보로의 추진력을 촉진한다는 점이다. 기존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음으로써 느슨해진 사회 구성원간의 연대와 통합을 재구축하는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전영평 외, 2005). 왜냐하면 갈등이 존재하는 사회는 활력이 있고, 비판력을 수용하여 자정의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갈등 현상은 사회 분열을 일으키고 사회발전에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제도, 규범 등의 교정으로 사회 발전 내지 사회 개혁에 동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갈등 자체를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순기능적인 측면을 활용한 갈등관리가 필요하겠다(전영평 외, 200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2절 세대 간 갈등에 대한 논의

1. 세대의 개념

세대(generation)는 사전적으로[2] “공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의식이나 풍속을 전개하는 일정 폭(幅)의 연령층”을 의미한다. ‘공통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응집력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가치관, 태도 등이 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초부터 세대 문제의 기본 개념과 한국 사회에서의 세대에 관한 개괄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박재흥, 2003). 예를 들어 우리 사회는 386세대, 90년대 신세대, 밀레니얼 세대, MZ세대 등 빠른 속도로 ‘새로운’ 세대 담론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세대’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현상이자 학술적 가치를 가지는 학문적 개념이므로 ‘세대’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세대의 어원(語源)을 연구한 나쉬(Nash, 1978)에 의하면, 세대(generation)는 그리스어 ‘genos’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녀의 출산을 의미하는데, 통상적 의미로는 “새로운 존재의 출현(to come into existence)”을 말한다. 그리스・라틴어 계통에서 용어의 쓰임을 확대하여 살펴보면 ‘세대’는 출생・재생산의 의미뿐만 아니라 역사에서의 시대, 생애주기별 단계, 가족, 인종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세대’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공통점과 그 이외의 타 집단과의 차이점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Nash, 1978).

만하임(Mannheim, 1952)은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최초로 세대 개념을 체계화하여 설명하였다.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인간은 출생과 사망의 경험을 통해 세대가 교체되는 ‘생물학적 세대’라는 점을 인식하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사회역사적 세대’로 나아가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만하임은 크게 두 개의 수준으로 구성되는 세대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 중 첫 번째가 ‘세대’를 인간의 생물학적 현상에 기반을 둔 사회적 위치(social location)라고 파악(Mannheim, 1952)하며, 출생시점의 유사성에 기초한 사회적 위치를 “세대 위치(generational location)”라고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

2) doopedia 두산백과 참고. https://www.doopedia.co.kr (2022년 10월 5일 접속)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적 위치의 공유가 일정한 범위의 잠재적 경험만을 갖도록 제한하고, 사고와 경험의 어떤 특징적인 양식과 역사적으로 적합한 특정한 행위 양식을 미리 갖도록 해주며, 그에 따라서 각 위치에는 어떤 일정한 행위, 감정, 사고 양식을 지향하는 경향이 내재한다"는 것이다(Mannheim, 1952). 두 번째로 만하임은 세대 개념의 두 번째 수준인 실질적 의미의 세대라고 생각한 "실제세대(actual generation; generation as an actuality)"와 "세대단위(generation unit)"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수준에서 제시했던 '세대위치'는 '실제세대'나 '세대단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만을 보유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대위치가 같은 사람들이 "공동 운명에 참여(participation in the common destiny)"하여 연대감이 만들어질 때 세대 위치의 잠재력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세대위치' 공유자가 "역동적 동요 과정의 사회적·지적 징후에 노출됨으로써 상호간에 구체적 연대감이 형성"되고 "새로운 상황을 창출하는 힘의 상호작용을 능동적·수동적으로 경험"할 때 '실제세대'로 발전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실제세대'가 역사적·문화적 상황에 대하여 반응 양식을 달리함에 따라 몇 개의 '세대단위'로 구분되어 지는 것이다(Mannheim, 1952).

정리하자면 만하임은 세대를 세대위치와 실제세대·세대단위의 두 가지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세대위치' 공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 시기의 출생과 동일 역사·문화권의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된다. 이후 '세대위치' 공유자가 '실제세대'와 '세대단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집단 경험 즉, 사회변동을 통한 공동운명체 의식과 연대감을 경험해야 한다고 보았다(박재흥, 2003).

그러나 만하임의 세대 개념은 '사회운동' 측면을 강조한 세대의 개념을 제시하여 다양한 사회 안에서 일상적이고 포괄적인 세대 현상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한계점은 있다. 또한 만하임이 제시한 개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상황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여 결과물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세대 개념을 현대 사회 현상에 대하여 넓게 통용될 수 있고, 경험적 준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박재흥, 2003).

한편 Kertzer(1983)는 세대 개념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용어를 제시하였는데, 이 용어들은 지금까지 사회과학에서 '세대'라는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친족계보(kinship descent)에서 동일 항렬의 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람들을 하나의 세대로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조부모-부모-자녀세대를 말한다. 두 번째, 출생 코호트(cohort)의 개념이다. 유사한 시기에 태어나 생애주기 단계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세대로 규정하였다. 이는 세대 개념을 체계화한 만하임의 이론적 기반을 두고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코호트의 세대 개념에서는 특히 청소년기의 경험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시기에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됨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관, 생활양식 등이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호트적 세대는 시간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의 세대 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학술적 연구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세대 개념이다. 세 번째로 청소년 세대, 청년세대,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등 같은 생애주기 단계(life stage)에서 비슷한 과업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세대로 규정하였다. 생애주기적 세대는 연령만이 세대 범주를 규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 시기가 지나면 그 세대 구성원들이 모두 교체되는 점에서 코호트적 세대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 역사적 시기를 함께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의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쟁 전후 세대, 일제 강점기 세대 등 해당 역사시기를 함께한 구성원 모두를 지칭한다. 역사적 시기에서의 세대 개념은 코호트적 세대보다 훨씬 넓은 구성원을 아우르고 있는 특징이 있다(Kertzer, 1983; 권정윤, 김난도, 2019; 최온유 2022).

박재홍(2003)은 코호트적 세대 규정을 토대로 '세대' 개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세대란 "1)동일한 역사·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2)공유된 경험에 기초하여, 다른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 태도, 행위양식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가지며, 3)자신이 속한 코호트에 대하여 최소한 느슨한 수준에서라도 동류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사회역사적 세대'라고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규정된 '세대' 개념을 살펴보았다. 세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단일한 개념 속에서 세대 현상을 파악하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세대 개념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한정란, 2015; 원영희, 한정란, 2019). 사회현상이 다양해지고 복합적이어서 특정한 세대 개념만으로는 학술적 논의를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 주제, 대상 등에 따라 세대 개념이 적절하게 인용된다면 세대 개념에 대한 모호성의 문제는 상쇄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세대 간 갈등의 개념

세대 간 갈등은 각 세대의 입장 차이로 빚어진 갈등을 의미한다. Bengtson, Furlong & Laufer(1974)은 세대 간 갈등 현상을 각 세대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세대 간에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사회 구성체 안에서 각 세대가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힘들 때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박재흥, 2001; 원영희, 한정란, 2019).

세대 간 갈등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대 차이'의 개념부터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세대 차이'란 삶을 살아가는 방식, 가치관 등에서 세대 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말한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공통의 사회·문화적 또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해당 세대만의 고유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각 세대들이 어떠한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으로 해결안을 생각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세대 차이는 생물학적 유기체인 인류가 재생산의 과정을 통해 사회·문화를 이어가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이다(최원기, 2006; 유병래 2015). 이러한 세대 간 차이가 전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세대 간 대립하고 있는 가치관이 충돌하여 표면적으로 나타나 하나의 사회문제를 만들 경우에는 '세대 간 갈등'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유병래, 2015; 정순둘 외, 2016).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정된 교통수단과 크지 않은 영역의 행동반경 때문에 다른 세대들도 이전 세대들과 비슷한 경험을 이어나갔고, 복합적인 현대 사회에 비해 세대갈등 현상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Higgs & Gilleard, 2010; 정순둘 외, 2016). 우리나라처럼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회 변동을 경험한 사회일수록 각 세대가 느끼는 가치관, 생활양식의 폭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사회가 급변할수록 다양한 세대가 등장하고, 세대 간 차이를 느끼는 각 영역에서의 역사적 경험들이 응축되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이다(김윤정 외, 2004; 정순둘 외, 2016).

이처럼 '세대 간 갈등 현상'은 '세대', '세대 차이' 개념에서부터 발현되어 어떠한 사회의 갈등선으로 작동하면서 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사회'로 인정받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대가 만들어낸 생활양식, 문화, 제도적인 부분 등의 다름을 인식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차성란, 2013; 은석, 2019). 인류의 사회・문화・역사 변화의 원동력을 '세대 간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사회규범에 따라 생활양식이 형성된 구성원 간에는 긴장과 경쟁이 있을 수 있다. 집단 간에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보다는 정체될 수밖에 없으며, 건강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쟁은 구성원 간에 투쟁적 양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코저(Coser, 1956)는 잘 관리만 된다면 사회에 바람직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칡이나 등나무의 덩굴이 얽힌 것들을 풀고 조정하는 정치와 행정의 사회 시스템이 존재하기에 이를 통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유병래, 2015).

3. 세대 간 갈등의 원인

한국사회는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 계급과 성(性)의 불평등의 갈등 현상이 사회문제의 주요 기류였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부터 '세대'가 사회문제의 또 다른 요인으로 등장하였다(한완상, 1991; 함인희, 2013). 그 바탕에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 한 사회 구성원의 연령층이 확대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의 스펙트럼 또한 넓어지면서 다세대가 출현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1990년대 중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외환위기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으면서 다양한 세대의 가치관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여유가 없었다. 세대 간 인식이 무관심에서 시작하여 점차 혐오 또는 부정의 표현을 통해 상호 이질감을 점차 드러내며 '세대 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것이다(원영희, 한정란, 2019). 이러한 측면에서 세대 간 갈등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을 세대 차이에서 기인한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세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Inglehart, 1997; 박재홍·강수택, 2012; Ipsos, 2021). 산업화 세대였던 사람들이 노년층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그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약화된 상태에서 비하 또는 조롱 등의 혐오 대상이 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었다(정순둘 외, 2019). 연령에 의한 차별은 나와는 다른 연령층을 향한 편견, 고정관념, 부정적 행동을 포함하는 의미이다(Butler, 1969). 혐오 표현은 특정 대상에게 모욕 등의 부정적인 혐오 감정을 드러내거나 나와 같은 선상에 있는 집단과 함께 선동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소영, 2016). 이처럼 자신과는 다른 연령층을 향한 차별과 혐오 표현 등의 부정적인 태도가 세대 간 갈등의 근본적인 유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적인 영역까지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세대 간 갈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 영역에서 세대 간 의식 격차로 부정적 의견을 담은 여론몰이와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되어 '세대 간 갈등'이 사회문제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정순둘 외, 2021).

그렇다면 정부와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의무는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갈등 조정의 결과물인 세대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세대 간 공존의 전제는 서로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을 세분화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사회심리학적 요인, Riley(1985) 갈등 분석,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심리학적 요인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을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김은성, 2004).

첫 번째 현실적 집단갈등(realistic intergroup conflict)으로 나타난다. 각 세대가 고유한 목표 수립을 하는데 있어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세대 간에는 인지적 영역으로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 또는 '자신'이 포함된 집단에 대하여 소속감과 응집력을 높이려는 욕구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자신'과 연관이 있는 집단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자신'과 연관이 없거나 차이를 갖는 타 집단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기 때문에 세대 간 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등이 나타나는 점이다.

세 번째는 앞서 언급한 세대 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세대 간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갈등 자체가 일시적인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세대 간 소통 부족에 따른 정확한 정보의 결여 및 오해가 다세대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갈등과 편견이 양산되어 세대 간 갈등을 촉발시킨다는 점이다.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갈등의 원인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나, 갈등의 원인은 복합적인 것이기에 특정 부분 하나가 원인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두 개 이상의 원인이 상호작용하여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김영곤, 2016).

2) Riley의 갈등 분석

Riley(1985)는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을 '관념적 갈등', '권력 갈등', '배분적 갈등'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세대 간 갈등이 관념적인 영역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본 가치와 목표의 충돌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세대 간 인식이나 가치관이 다르게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빠르게 출현, 이전 세대는 급격히 쇠약해지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앞선 세대의 '이로운' 것에 대한 전승이 아닌 '해로운' 것이라고 판단하는 배타성만 남아, 각 세대의 사회발전을 구상하는 세계관이 크게 달라지는 관념적 갈등이 부각되는 것이라 보여진다.

두 번째, 어떠한 특정 세대가 정당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권력을 획득하여 타세대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 권력적 갈등이 표출되기도 한다. 이를 권력 갈등이라 분석하였다. 2000년대 초반 한국사회에서는 기성세대 권력에 대항하는 신세대가 정치권에서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정보통신기술 혁명, 부정부패, 외환위기 등 기성세대의 권력에 대하여 사회정치적으로 권력을 획득할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물이 2002년 대통령 선거였다. 이는 당시 2030 세대가 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간 행해져왔던 정당성 없는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세대 전환의 중대한 계기(송호근, 2003)가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권력적 갈등의 결과, 이들은 세대 간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세대단절”의 양상을 보였다. 더 나아가 기성세대 권력 획득과 유지에 사회적 정당성이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권력을 전면 양도하라는 “세대비약”의 상황에 치닫기도 하였다(함인희, 2013).

세 번째, 배분적 갈등이다. 각 세대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기여와 보상수준의 상대적인 차이가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이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세대 간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은 인구 구조가 저출산과 맞물려 전체 인구 중에 만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인구고령화 비율이 급격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속한 인구고령화 현상은 인구학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기도 하지만,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예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계봉오, 2015; 김태정, 2011; 방하남, 이다미, 2015; 서헌주, 2011; 황선재, 임훈민, 2020). 인구고령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연령인구(working-age population)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활력의 감소 현상인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Dent, 2014; 조영태, 2016). 결과적으로 향후 노년층 세대의 공적연금, 의료비, 복지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후속 세대의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김태일, 2015; 김희삼, 2015; 최유석, 오유진, 문유진, 2015). 세대 간 배분으로 일어난 갈등 현상은 세대 간 형평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경험한 코로나19로 인한 저성장 문제, 산업구조 재편, 취업난 등의 사회변화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배분적 문제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김희삼, 2015; 황선재, 2022).

3) 개인적・사회적 영역

개인적 영역에서의 세대 간 갈등 양상은 주로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나타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가족구조가 확대가족에서 소가족·핵가족화 되었고, 개인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자녀세대에서 두드려졌다. 이러한 기류 속에 개인의 생활양식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에 의한 갈등문제가 나타났다(박경숙 외, 2012). 예를 들어 가부장제도, 성인지에 대한 인식에서 부모세대와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부모세대가 고수하고 있던 가치관과 권위에 순응하지 않는 자녀세대 증가하고 있다(유병래, 2015).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전세대의 삶의 기준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착화 되어 다음세대에게 요구하면서 세대 간 시대적 괴리가 발생하는 점이다(정순둘 외, 2021). 예를 들어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반항이라 여기며, 이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긴장과 갈등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교육관이 자녀세대에게 비춰졌을 때, 세대 간 역전 현상은 더 커지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의 격하로 권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이 개인적인 능력에 따른 권위가 중요시되면서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의 눈치를 보는 관계로 바뀔 수 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양육과 부양문제의 갈등이 그 예이다. 자녀세대에선 더 이상 남성에 의존하지 않고 맞벌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자녀의 양육을 부모세대에게 떠넘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부모세대를 향한 부양의 책임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함인희, 2013). 이러한 상황에서의 세대 간 갈등의 심화는 가족 세대 간 돌봄 노동 제공에 따른 경제적, 정서적 보상의 자원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경쟁사회에서 패배한 자녀세대가 기본적인 삶의 여유가 없어졌을 때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차성란, 2014; 정순둘 외, 2021).

현재의 한국사회는 사회발전의 토대인 경제발전의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삶의 질이 좋아진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며 상생보다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문화를 양산한 점은 부모세대에 대한 자녀세대의 효 의식을 약화시켰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이처럼 개인의 영역이었던 가족 내 양육과 노인부양의무는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나 하나의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김지영, 2005; 국가인권위원회, 2018).

다음으로 세대 간 갈등의 요인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박재홍(2010)은 세대 간 갈등의 요인을 사회적 영역에 집중하여 문화·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치적·경제적 갈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문화 갈등 측면이다. 앞서 언급한 Riley(1985)의 관념적 갈등과 유사한다. 각 세대가 가치관의 차이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부터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의 큰 변동을 함께 겪음으로써 같은 세대군에서는 동질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와는 다른 세대를 향해서는 다른 문화군이라 편견을 갖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시도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세대 간 공유했거나 현재 생각하고 있는 문화의 내용이 달라, 문화적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세대 간에 의사소통의 형성조차 원활하지 않는다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발전의 한 요소인 상생 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문화 갈등 요인을 사회전반 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직 측면에서 '권위'를 바라보는 세대 간에 의식과 행동의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되기도 한다. 권위를 상징하는 집단주의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의 문화가 세대 간 대척점을 이루며 존재한다. 전자에는 수직적인 구조 하에 권위를 기반으로 하여 조직의 단합력을 중시하는 기성세대가 존재한다. 후자에는 조직 구성원관 계급보다는 수평적 평등 구조를 갖는 조직 하에서 합리적 근거에 따른 권위의 정당성 확보를 강조(Weber, 1968)하는 청년세대가 존재한다. 집단주의와 권위주의에 복종하는 청년기를 보낸 기성세대가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를 수용하는 청년 세대를 맞이하면서 본인들이 누릴 사회적 권위에 대한 기대치가 낮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구자숙, 한준, 김명언, 1999).

두 번째, 정치적 갈등 측면이다. 정치적 요인의 경우는 이념 갈등과 권력 갈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이념 갈등은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갈등이다. 대부분 청년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반면, 기성세대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정치적인 영역에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권력 갈등은 권력획득과정에 있어서 권력을 잡고 있는 세대와 권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세대 간의 갈등이다(김영곤, 2016). 한국의 정치는 역사적으로 민주화의 과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권력을 유지하는 세대를 향한 불신으로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어 갈등이 늘 존재해왔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갈등 측면이다. 세대 간 물질적인 이해관계에서 기인한 것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라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세대의 노인부양부담 문제, 국민연금제도의 불안정성, 청년 고용난, '복지' 파트의 국가재정 운용 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세대 간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세대 간 갈등은 문화·정치의 갈등 요인과는 달리 정부의 신중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백종선, 2013).

4. 세대 간 갈등에 관한 이론

세대 간 갈등, 갈등의 통합에 관련이 있는 이론을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심리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세대 간 갈등 현상을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측면에서 이해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갈등'을 나타낸 이론들을 살펴보고, 갈등의 통합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실천적 논의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사회심리이론

(1) 학습이론

학습이론이란 인간은 학습되는 습관에 따라 개개인의 생활양식,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학습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 시간·장소에서 나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총체적인 상황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타인이 했던 부분들을 모방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시인 또는 보상이 강화됐을 때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다(홍대식, 1994). 어떠한 가치를 학습하는데 있어서도 지속력을 갖고 반복적으로 자극 또는 모방이 행해질 때 학습의 효과는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각 세대의 올바른 정체성 형성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대 간 차이를 인식하고 사회통합에 이르는데 있어 '함양 교육'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이인정, 201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동조이론

동조 이론이란 자신의 판단 또는 가치관이 다를 경우에도 불구하고 집단에서는 공적인 동조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Asch, 1951). 동조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집단 구성원에 대한 호감, 집단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성취 여부, 집단에 소속되었을 때의 이익 수준, 나의 가치관이 집단의 가치와 어느 정도 동일시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있다. 집단의 목표 및 이익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협력 과정은 집단 구성원 간에 호감을 증진시키며, 이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집단만의 공유 가치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각 세대들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소속 세대 구성원 간 호감을 증대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상생 공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에 각 세대들이 특정한 공유 가치를 개발함에 따라 이들의 생각을 사회 전반에 투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세대의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사회모습에 대한 대안 부재 여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 등이 있기 때문에 비동조가 쉽게 나올 수 없게 된다(홍대식, 1994). 이는 세대의 구성원이 책임을 공유하고 세대가 지향하는 사회관에 있어서 주체적인 노력을 투자를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소속감과 책임감은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인정, 2013).

(3) 인지-감정 일관성 이론

인지-감정 일관성 이론이란 일종의 역사적 사건들이 개인의 인지 구조에 일정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국제통화기금(IMF), 촛불집회 등 특정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개인의 인지적 요소가 감정적 선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역으로 개인에게 부합하는 인지적 요소들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촛불집회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민주화 구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민주화 과정에 대한 관심과 흥미'라는 '감정적 선호'가 발현된다.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감정적 선호의 변화가 '최소 노력의 원리'에 따라서 최소한으로만 추구하게 되는 '균형 이론'(홍대식, 1994)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차원을 요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인지부조화 이론

인지부조화이론이란 개인이 본래 형성된 가치관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게 됐을 때, 자신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변화시켜 그 상황을 합리화시켜 긴장을 완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해준다(Festinger, 1959). 즉 세대 간 갈등에 통합에 있어서도 자신이 속한 세대와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지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사회통합에 입각한 포용적인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이나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의 변화는 인지부조화가 증가할 때 유발된다. 인지부조화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이 자신을 향한 위협적 행동이 낮거나 보상이 크지 않더라도 보상의 빈도가 클 때 더 효과적으로 증대된다(이인정, 2013).

2) 통합적 갈등 이론

통합적 갈등 이론에서는 현실적 갈등, 상징적 갈등, 집단 간 불안 심리, 부정적 고정관념의 네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오영삼, 남성희, 윤수경, 2014).

첫 번째, Campbell(1965)의 현실적 집단갈등 이론에 근거한 현실적 갈등은 집단 간의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 또는 자원을 획득하고자 할 때의 경쟁관계에서 유발하는 상황을 말하며(김영곤, 2016), 집단 간 갈등의 원인을 양립할 수 없는 목표와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본다(Campbell, 1965). 각 집단은 권력, 사회적 지위, 돈과 같은 지각된 희소성 또는 자원의 실제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의 결과로 한 집단만이 승자가 되어 자원을 얻고 다른 집단은 자원을 얻을 수 없는 제로섬(zero-sum) 상황이 되어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원영희, 한정란, 2019). 현실적 집단갈등 이론에서는 집단 간 적대감 또는 혐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목표 갈등 및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을 촉발되는지를 설명하고, 나와는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 차별의 감정 또한 알 수 있다(Jackson, 1993).

두 번째, 상징적 갈등은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 사회적 규범 등의 차이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이다. 어느 한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규범 또는 질서가 외집단의 상징에 의해 훼손되었을 때 일어난다. 규범적인 부분을 강하게 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수하는 집단일수록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높은 수준에서 느끼게 되어 통합의 수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Vala et al., 2006).

세 번째, 집단 간의 불안 심리는 어느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접촉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촉발 하는 갈등을 말한다. 집단의 자아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를 경험하거나 다른 집단 구성원과의 관계에서의 거부감 내지 불쾌감 등의 반응 현상이라 볼 수 있다(Stephan et al., 1999). 다른 집단과의 접촉으로 인해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게 직·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높아질 것이다(김영곤, 2016).

네 번째, 부정적 고정관념은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향한 부정적 편견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나와는 다른 집단에 대하여 부정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 간의 불안이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관점들과는 구분된다(Hogg, 2013).

이처럼 통합적 갈등이론은 현재 우리 사회 문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금 고갈 등 희소성을 띈 자원을 두고 세대 간 경쟁구도로 발생하고 있는 점, 나와는 다른 세대를 향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세대 집단이 형성하고 있는 가치관 또는 신념의 차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3) 상대적 박탈 이론

상대적 박탈 이론은 개인 또는 집단이 깨달은 불공정성과 비형평성에 대한 맥락적인 상황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이론은 1970년대에 정교성을 갖추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한덕웅, 2002), 여러 학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시한 Stouffer et al.(1949)은 만족 또는 불만족을 느끼는 기준이 객관적 보다는 주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Davis(1959)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정의를 '집단의 구성원 중 박탈을 경험한 사람이 박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감정 또는 상태'라 하였다. 이 때의 박탈감은 불만, 불평, 분노, 실망 등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봄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rosby, 1982). Townsend(1979)는 상대적 박탈감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 객관적 박탈이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건으로 의식주의 결핍 상황에서의 박탈감을 말한다. 두 번째, 관습 또는 규범적 박탈이다. 이는 집단 또는 사회에서 특정한 가치나 생활양식이 형성됨에 따라 사회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이하가 됐을 때 나타나는 박탈감을 말한다. 세 번째, 개인의 주관 혹은 집단적 박탈이다. 이는 개인 또는 집단에서 비교된 관점에서 상대적인 결핍상태가 나타났을 때의 박탈감을 말한다. Runciman(1966)은 상대적 박탈감을 이기적 박탈과 우애적 박탈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이기적 박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 간 비교로 일어나는 감정이고, 우애적 박탈은 집단적 수준에서 대표 집단과 비교했을 때, 다른 집단에 비해 본인이 소속된 집단이 전체적으로 박탈됐다고 인지할 때 경험하는 감정이다. 집단적 차원의 우애적 박탈은 사회적 정체성의 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사회정체성이 개인 차원의 정체성이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이다(Brewer, 1991). 따라서 집단차원에서 지각하는 박탈감은 개인적 수준에서 느끼는 박탈감에 비해 상호간에 차별을 보다 강하게 인지될 수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불이익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느낀 감정에 비해 크게 차별을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Smith et al., 1994).

결과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만을 촉발시켜 갈등으로 심화되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 박탈을 경험할 경우에는 자신에게 처한 박탈이 이유나 조건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의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하면서 조정의식을 가지게 된다(김영곤, 2016). 상대적 박탈 이론에 근거했을 때, 집단 간 관계를 세대 간 갈등문제에 적용할 수 있겠다. 어느 한 세대가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게 특정한 상황 또는 요인에 의해서 박탈감을 지각할 경우 세대 간 대립구도가 성립하게 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사회적 정체성 이론

사회정체성 이론은 자아의 개념, 사회 집단 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Tajfel(1974)이 처음 주장하였으며, Tajfel & Turner(1979)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사회적 정체성을 개인적 수준을 넘어선 자기 영역의 확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즉 개인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을 말하지만, 사회정체성은 사회적 단위에서 고려할 수 있는 탈개인화의 자기범주화를 말한다. 본래 인간은 본인과 다른 사람들과 유사해지려는 기본적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Brewer, 1991).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이나 가치관을 가지는 정도에 따라 각각의 집단으로 범주화하게 된다. 범주화에 동일시하는 정도에 따라 자신이 포함된 내집단 규범의 동조 수준이 결정되는데, 이것이 나와는 다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편견이 생기게 되는 촉발점이라 할 수 있다(박군석, 2003; 정보성, 2021). 이러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집단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데, 비합법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일 때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Ellermers, 1993). 사회적 정체성 이론은 한정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는 현실적 집단 갈등이론적 측면도 물론 나타나지만, 국가, 인종, 나이, 성별 등 집단 간 사소한 차이에 의한 범주화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김금미, 안상수, 2008; 정보성, 2021).

이처럼 범주화의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정체성 이론은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기인한 사회적 유목화와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내집단 선호'의 결과물이다(Tajfel & Turner, 1979; 원영희, 한정란, 2019). 사회적 정체성 이론 측면에서 세대에 따른 범주화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을 하며, 자신이 소속 또는 동일시하는 집단의 상대적 지위나 위치에 따라 본인을 평가하는 주된 기준이 된다. 또한, 본인이 소속한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집단과의 사회적 비교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내집단 구성원 간에는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차이가 드러난 외집단과는 갈등이 촉발되는 것이다(Hogg et al., 200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 사회적 교환 이론

사회적 교환 이론은 공리주의 경제학, 기능주의 인류학, 행태주의 심리학, 갈등 이론을 근간으로 1960년대 Homans, Blau, Emerson 등에 의해 정교화 되었다(김영곤, 2016). 대인관계의 활성화 및 지속성 등의 설명이 가능하며 개인과 집단 사이 관계성에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이론이다(Eisenberger et al., 1997). 더 나아가 세대 간 갈등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유용한 이론적 틀로 사회적 교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적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행위자 간에 가치를 띄는 물질적, 비물질적 보상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행위자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 호의를 받은 사람도 이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하는 호혜성 규범이 사회 질서 유지의 기반이 된다. 호혜성 규범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보상의 교환 과정을 가정한다(박재흥, 1991). 이러한 가정에서 몇 가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상호간에 교환하는 자원이 동일했을 때, '균등한 교환관계'가 성립된다. 반대로 상대방을 향한 호의 대비 본인이 받은 호의가 충족치 않다면 '교환의 불균형 관계' 생기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때 상호 간에 권력-의존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느 일방이 호의에 보답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복종하며, 이때 복종을 받는 사람이 권력을 획득한다는 것이다(Blau, 1964). 권력-의존관계의 이론적 틀에 세대 간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한정된 자원을 획득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호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양자 간 의도 여부에 관계없이 권력-의존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권력우위의 점유를 활용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추가적 비용의 부과가 발생할 있음을 의미한다(Emerson, 1972).

6) 사회적 접촉 가설

사회적 접촉 가설이란 적절한 조건에서의 집단 상호간에 접촉은 집단 간 관계를 개선하고 집단 간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port, 1954). 세대 간 갈등에 적용한다면 세대 간 접촉이 활성화 될수록 갈등이 해소되고 상호간의 공격적인 태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상호 간에 접촉이 항상 긍정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대감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Amir, 1976). 즉 접촉의 양도 중요하지만 현상의 심각성, 목표의 동질화 등을 설명이 가능하게 만드는 적절한 접촉, 만남의 질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한정란, 2000; Pinquart et al. 2000).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조건에서의 상호 간에 접촉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갖지만, 부정적인 상황에서 해결점이 없는 일방향적인 접촉 경험은 오히려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촉의 질을 중요시하는 측면에서 Wilner, Walkley & Cook(1952)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상호 간에 '평등한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두 이상의 집단이 어떠한 접촉을 하게 될 때, 관계 속에서 만큼은 평등하게 참여해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공통의 목표'가 전제되어야 한다. 세 번째, '상호 간 협력'이 필요하다. 상호간에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경쟁 심리는 내려두고 협력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권위의 지지'이다. 법이나 관습과 같은 사회를 구성하는 일종의 권위로부터 집단 간 접촉에 대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 특정한 사건을 위한 접촉을 했을 경우에도 상호간에 태도의 변화는 나타나기는 하지만 접촉이 일어난 구체적인 상황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접촉 경험을 가지는 것이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접촉 가설에 근거하여 세대 간 갈등 상황에서 집단 간 접촉이 중요한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집단 간 접촉으로 나와는 다른 외부 집단에 대한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Allport, 1954). 두 번째, 편견이 고착화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타집단의 구성원들과 접촉을 함으로써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Stephan & Stephan, 1985). 세 번째, 집단 간 접촉으로 타집단의 고유한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그들의 관심사를 공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때문이다(Stephan & Finlay, 1999). 집단 간 접촉을 통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감소는 집단 유목화의 재개념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Allport(1954)의 주장처럼 편견은 불완전하거나 옳지 않은 정보로 해당 집단 구성원들에 대하여 과잉 일반화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타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편견을 줄일 수 있다(원영희, 한정란, 2019).

7) 사회 통합 이론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는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의 사회 통합'이다. 이에 세대 간 갈등 문제에 대한 통합 논의는 '국민 통합' 성공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통합이란 사회공동체 내의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제를 말하며, 공동의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여 구성원 간 상호의존성을 증진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국민통합의 척도는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화합의 수준, 관용의 증대 여부, 이질적 요소와의 공존,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불편의 수용 능력 등이 있다(박종철 외, 2004).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개념으로서의 '세대 간 갈등 인식 통합'은 상호 구성원들 간 가치관, 생활양식 등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이인정, 2013). 사회 통합은 대면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구성원들 간의 평등하고 자발적인 상호교환으로 이루어지며(Giddens, 윤병철·박병래 역, 1991), 개인 또는 집단이 복합적이고 개방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의 행동을 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전성우, 1995).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 세대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 도이치(Deutsch, 1957)는 "어떤 영역 내의 국민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평화적 변화의 믿을 수 있는 기대가 확약되는 매우 강하고 광범위한 공동사회의식과 제도 및 실제의 달성"을 통합이라고 보았다. 도이치의 통합 개념을 차용하여 '세대 간 갈등 인식 통합'을 생각해본다면, 각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나 이해관계에 대한 통합의 과정은 평화적 변화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나 제도의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 사회의식의 달성 측면에 주목하여야 만이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3절 세대 간 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1. 사회적 요인

세대 간 갈등 인식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인식 즉 '국가관'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관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가족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의 형태 중 대가족은 매우 드문 가족 형태가 되었다. 부부와 그들의 자녀, 즉 2세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형태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1인 가구, 자녀 없는 가구 등이 등장하며 가족의 형태들이 예전보다는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인구구조학적인 관점과 국가의 발전상을 고려했을 때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닐 수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고 정보통신기술혁명까지 더해져 만들어진 사회적 산물이다. 이러한 핵가족화 사회현상에서 대부분의 가족구성원들은 자녀 중심적인 가족문화 또는 개인 중심적으로 성장하여 공동체주의보다는 개인주의와 개성을 중시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이 하나의 '세대'로 모여지는 것이다. 핵가족의 형태에서 사회화를 경험한 세대들은 개인 간 또는 집단에서의 구속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에 민감하며 보장받고자 하는 특성을 지닌다. 서용석(2013)은 개인중심적인 사회구조에서의 구성원들은 국가관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보았다.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동일선상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희생은 소극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더 젊은 세대일수록 국가관이 미약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있다.

2. 사회신뢰 요인

신뢰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의도에 대하여 긍정적 기대를 바탕으로 자신의 취약성을 수용하려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된다(Rousseau, 1998). 신뢰는 사회학, 사회심리학, 경제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문제로 설정되어 왔는데,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강철희 외, 2012). 정부를 향한 신뢰의 개념을 언급한 이태준, 정원준(2016)은 정부 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뢰를 정부가 옳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사회구성원들의 믿음으로 이해한다. 즉, 정부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윤리적·효율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신뢰요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신뢰성, 공정성, 안전성에 대하여 세대 간 갈등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서용석(2013)은 우리사회의 신뢰에 대하여 모든 세대가 우리사회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고, 특히 노년세대보다는 젊은 세대가 우리사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주도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산업화세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정부 즉 우리사회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군부독재와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이후 세대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전 세대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세대 간 중요한 갈등 지점으로 향후 우리사회의 주요한 세대 갈등으로 격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가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오늘날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고도 성장기에 경제활동에 들어선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의 인구가 많아 취업과 승진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불공정성이 우리사회 구조적인 기회의 결함은 세대 간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도 정부신뢰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세월호 사태와 같은 비상식적인 역사적 경험을 처음 겪어본 젊은 세대의 경우, 우리사회가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끊임없는 위험 요소에 노출되고 있다. 정보의 통제·왜곡 등으로 인해 위험성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송해룡·김원제, 2013)에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는 그들에게 놓여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경제적 요인

세대 간 갈등 인식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으로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실업 증가'를 중점으로 본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는 인구고령화현상과 맞물려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세대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핵심 축으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해졌기 때문이다(황선재, 2022). 즉, 경제적 요인에서 파악한 세대 간 인식 차이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서용석, 2013). 코로나 19로 고용시장과 국가경제는 더 침체되어 청년실업과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세대 간 이익이 상충하면서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지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이전 세대의 정년 연장 부분에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고갈 등에 따른 연금개혁의 본격화의 경우에도 세대 간 갈등 인식의 차이를 일으키는 지점일 것이다.

4. 환경적 요인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환경 분야의 갈등 사례가 적지 않은 사실은 환경적 요인이 사회갈등의 하나로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발과 보전의 대척점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 간 갈등의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김종호 외, 2004). 청정의 섬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과정에 환경훼손 문제에 대하여 제주도민 내부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경험하였다(한문성 외, 2021).

5. 정치적 요인

정치영역에서의 세대 간 차이는 정치적 의식과 행동에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젊은 세대는 진보성향의 정치적 운동을 하였으며, 2000년대부터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치적으로 기존과 다른 방식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정치참여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 세대 간 갈등의 인식의 차이의 산물이 2002년 대선이라고 볼 수 있다(강원택, 2004). 그 결과 2002년 대선 직후에는 2003년 이른바 세대 정치(politics ofgeneration)를 주제로 한 세대논쟁이 제기되기도 했다(이동연, 2003). 인터넷이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20~30대 청년세대가 기존질서에 대한 전면적 도전과 새로운 권위를 요구하였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조직력으로 권력 창출을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故노무현 대통령을 선출하여 참여 정부의 결과를 이루어냈던 것이다. 노년세대와 대립한 청년세대의 진보성향이 화제가 되면서 진보-보수의 대립이 세대 간 대립임이 강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 한국사회가 변화하는 원동력으로 세대의 역할이 정치적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됐다(박길성, 2013).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이라는 아픔을 몸소 체험한 노년세대의 경우에는 반공과 국가안보의 존위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면서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성향의 정치적 행동을 보인 반면 민주화세대 이후의 세대들이 집결하여 진보적인 정치·사회의식과 함께, 참여, 개혁의 '세대 가치'를 공유하였다(서용석, 2013).

제4절 선행연구 검토

한국사회는 정치・경제・사회사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서 역사적 경험의 정도가 큰 사건, 사고들이 많았다. 그 과정 속에서 특정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다양하게 등장했다. 이에 세대 간 갈등 현상에 관한 연구는 크고 작은 범위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전에는 가족 내 세대 간 갈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날은 세대 간 갈등이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사회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정책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령주의, 세대차이, 세대갈등, 세대통합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론'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1980년대 초 세대문제의 기본적인 개념과 한국사회에서의 세대 차이에 관한 개괄적 논의가 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루어졌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전후 세대의 가치관을 인문학, 사회과학의 학문분야에서 조명되기 시작했다(박재흥, 2003). 그 간 한국의 현대사에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역사의 격동기마다 시대 변화를 주도한 세대가 가치관과 정체성을 주창해왔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 사회과학계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란 연구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박재흥(2003)은 한국사회의 세대갈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한 선구자로 '세대'를 다른 유사 개념들과 구별하여 명료하게 규정하는 이론적 연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만하임의 세대 개념의 비판적 대안으로 세대를 재개념화 했으며, 재개념화와 관련된 두 주요 쟁점인 '세대의식'과 '경험 공유 효과'에 대한 논의를 정립하였다.

이인정(2013)은 한국사회의 남남갈등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세대 갈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세대갈등의 현상은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로 인한 세대 경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이념에 대한 세대 갈등은 지역 갈등, 계층 갈등과 결합하면서 증폭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며, 민족의 통일 이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세대 갈등 통합을 위한 교육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준용(2014)은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복지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며, 분배정의에 대한 인식이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복지태도의 영향관계에서 매개효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갈등과 분배정의의 인과적 구조에 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였으며, 사회구성원이 긍정적인 복지태도를 가지기 위해 정책 입안 과정에서 분배정의와 관련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김영곤, 강제상(2016)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조직문화가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독립변수인 한국의 조직문화의 하위변수를 권위주의, 연고주의, 온정주의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인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을 과업갈등, 관계갈등, 과정갈등의 3가지 유형으로 설명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분석결과, 권위주의와 온정주의는 세대 간 갈등에 정(+)의 영향을 주지만 연고주의는 세대 간 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 보완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조직 내 세대 간 갈등 저감을 위한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왕서혜, 박상수(2018)는 중국 기업 내 직원을 대상으로 세대 차이에 따른 세대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국 기업 내 세대차이는 세대갈등에 정(+)의 영향을 주며, 세대 갈등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조직문화의 경쟁가치모형을 이용하여 세대차이와 세대갈등이 조직문화 유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모든 조직문화(혁신지향문화, 관계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에서 관계갈등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중국 기업 내 세대 차이와 세대갈등의 존재성을 재확인함에 따라 신세대 직원이 세대갈등과 이직의도를 낮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원영희, 한정란(2019)는 세대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가로막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라 지적하였다. 세대갈등의 원인을 사회적 정체성 이론, 사회적 접촉 가설, 현실적 집단갈등 이론 등 사회심리학적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세대 갈등을 해결해야하는 이유에서 특히 세대통합을 중시하였는데,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고령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노년교육학적 관점에서 세대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세대통합 문화의 조성, 세대통합 규범의 내재화, 세대통합을 위한 제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김미리 외(2020)는 2018년 9월 기준, 만 20세~64세의 전국 성인남녀 833명을 대상으로 연령주의와 세대갈등 인식의 관계에서 미디어 노인차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미디어 이용시간의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연령주의는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정(+)의 영향을 주며, 미디어 속 노인차별에 대한 접촉 경험이 연령주의와 세대 간 갈등 인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미디어 이용시간도 연령주의와 미디어 노인차별의 상호작용효과와 세대 간 갈등 인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사회에서 만연하게 퍼진 세대갈등이 연령차별적 태도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편견 속에서 강화되어 가고, 그중 직접적인 접촉이 많지 않은 노인 세대의 이미지를 미디어가 특정한 방향으로 재생산해냄으로써 노인세대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세대 간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나, 물리적인 한계로 현실화되기는 어려우므로 상용화된 매개체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미디어에서 다각화된 노인 이미지 구현, 세대 간 연대 기반의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노인세대에 대한 편견을 줄여나가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여 상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정보성(2020)은 전국 경찰공무원을 연구대상으로 경찰공무원의 세대 차이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공무원의 세대 차이가 조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며, 세대갈등이 세대 차이와 조직효과성의 영향관계에서 매개효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의 효율적인 조직・인사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순둘 외(2021)은 세대, 세대갈등에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연령집단 간 나타나는 세대갈등의 다양한 영역과 원인 분석을 통해 세대갈등을 완화・조정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황선재(2022)는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령화, 세대갈등 현상을 세대 간 형평의 관점 즉 국가적 차원에서의 자원배분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와 분석기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오늘날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세대갈등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세대 간에 형평하게 자원 배분을 진행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경제적 자원 배분을 고려한 세대 간 형평과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문제와 국민연금 등의 당면 사안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연령구조가 고령화가 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예산액이 증가할 보건・복지의료, 기타 사회보호 수요 등의 정책을 제시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2-1>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대상	연구방법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박재흥 (2003)	세대 개념의 용법 검토, 만하임의 세대 개념의 비판적 대안으로 세대에 대한 개념 제시				-	질적 연구
이인정 (2013)	세대갈등통합에 관한 이론적 검토 및 분단국 통일 사례를 통해 사회통합 방안 모색				-	질적 연구
이준용 (2014)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계층, 노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	분배정의에 대한 인식(평등, 욕구, 공적)	-	복지태도(복지 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재정 확충)	안양시민 615명	구조방정식
김영곤 강제상 (2016)	한국의 조직문화(권위주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	-	조직 내 세대 간 갈등	소방공무원 490명	다중회귀분석
왕서혜 박상수 (2018)	세대차이(집단-개인, 권위-평등, 인본-물질) 세대갈등(과업 갈등, 관계갈등)	-	-	이직의도	중국기업 내 직원 392명	다중회귀분석
원영희 한정란 (2019)	노년교육학적 관점에서 세대갈등의 현황 및 우리 사회 세대통합을 위한 과제 탐색				-	질적 연구
김미리 (2020)	연령주의	-	미디어이용시간 미디어노인차별	세대갈등인식	전국성인 833명	조절회귀분석
정순둘 (2021)	세대갈등의 맥락과 원인에 대한 연령집단 간 차이 분석				세대갈등 전문가 20명	델파이조사
황선재 (2022)	한국의 인구고령화 현황 및 추이,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상관성 도출, 세대 간 일자리 분석 및 자원배분				-	국민이전 계정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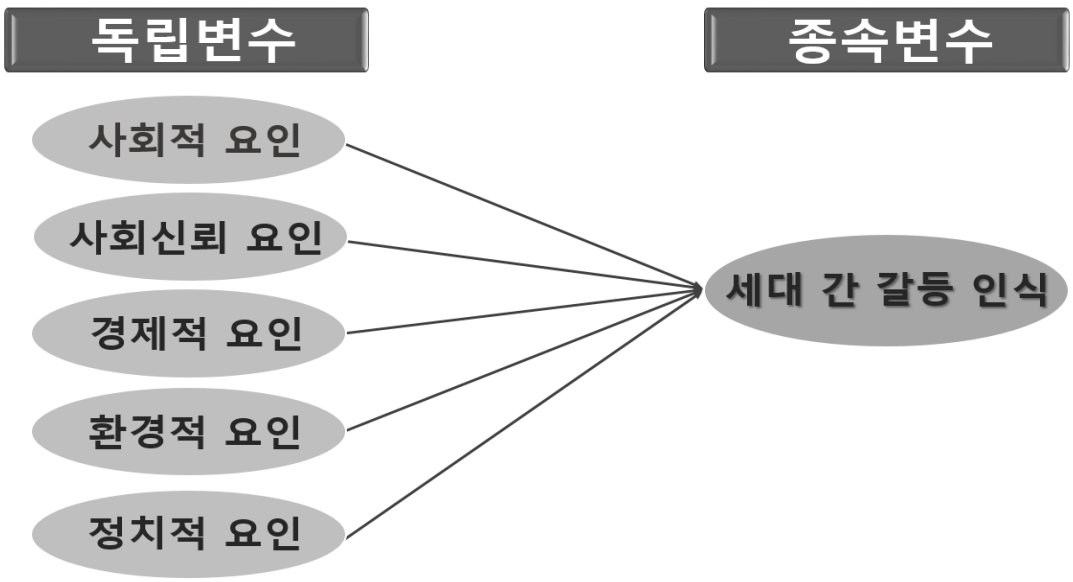
제3장 연구의 설계

제1절 연구모형

1. 분석모형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인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세대 간 갈등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세대 간 갈등에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사회적 요인, 사회신뢰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치적 요인을 설정하였다. 사회적 요인의 경우 국가발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사회신뢰요인은 한국사회에 대한 관점과 평가(신뢰, 공정, 안전)를 중심으로, 경제적 요인은 청년 취업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환경적 요인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여부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정치적 요인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 및 정치문제에 대한 참여여부를 중심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의 설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조사대상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리서치 기관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3]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이 2021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9일간)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설문지 500부를 수집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자는 256명(51.2%)이며, 여성은 244명(48.8%)으로 비슷하였다.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0대가 84명(16.8%)으로 가장 적었으며, 50대가 121명(24.2%)으로 가장 많았다. 혼인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혼상태인 사람이 286명(57.2)이었고, 미혼인 상태인 사람은 214명(42.8%)으로 기혼인 사람이 많았다. 학력기준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가 6명(1.2%)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학교 졸업이 364명(7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 3-1>와 같다.

<표 3-1>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500)

구 분		사례수(%)	구분		사례수(%)
성별	남성	256(51.2)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6(1.2)
	여성	244(48.8)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79(15.8)
연령	만20~29세	88(17.6)		대학교 졸업 (재학/중퇴/전문대 포함)	364(72.8)
	만30~39세	84(16.8)			
	만40~49세	118(23.6)			
	만50~59세	121(24.2)		대학원(재학/졸업) 이상	51(10.2)
	만60~69세	89(17.8)			
혼인	기혼	286(57.2)	거주 기간	5년미만	52(10.4)
				5~10년 미만	71(14.2)
	미혼	214(42.8)		10~20년 미만	46(9.2
				20년 이상	331(66.2)

3)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민통합을 위한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조사' ㈜엠브레인퍼블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2절 측정도구 및 기술통계

1. 측정도구 및 분석변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인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선행연구들의 문항을 토대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도민 통합을 위한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 조사(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의 내용 중에서 세대 간 갈등 인식에 대한 요인변수 6가지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6가지 요인변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세대 간 갈등 인식 요인 변수의 경우 3개 문항을 관측변수로 선정하였고, 사회적 요인 3개 문항, 경제적 요인 2개 문항, 환경적 요인 3개 문항, 정치적 요인 3개 문항, 사회신뢰요인 3개 문항을 관측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로 활용한 문항들은 설문조사지의 문항 중 요인분석 및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설문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①번은 매우부정을 ⑤번은 매우 긍정으로 활용하였다. 설문의 측정문항을 살펴보면 <표 3-2>과 같다.

<표 3-2> 측정항목 및 참고문헌

요인변수	관측변수	측정항목	참고문헌
세대 간 갈등 인식 요인 (3문항)	A1	우리나라는 세대 간 갈등이 높다.	이성식(2006) 서용석(2013) 박민선(2020) 김유경(2021)
	A2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3	세대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적 요인 (3문항)	B1	사회나 국가발전을 위해 내 개인적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서용석(2013) 김영곤(2016) 민수진(2017) 함정희(2019) 신진섭(2020)
	B2	국가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과 연결된다.	
	B3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회신뢰 요인 (3문항)	C1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 신뢰한다.	서용석(2013) 김영곤(2016)
	C2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C3	우리사회가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요인 (2문항)	D1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용석(2013)
	D2	제주도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적 요인 (3문항)	E1	제주도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용석(2013) 한문성・김주경・양덕순(2021)
	E2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E3	지금부터 10년 이후, 제주도 환경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정치적 요인 (3문항)	F1	나는 정치에 관심이 많다.	손의숙(2006) 서용석(2013) 신진섭(2020)
	F2	나는 선거에 있어 투표를 한다.	
	F3	나는 정치적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한다.	

2.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전, 요인변수별 측정항목에 대한 결과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각 요인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대 간 갈등 인식' 설문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세대 간 갈등 인식'에 대하여 측정 항목을 3가지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세대 간 갈등의 수준이 높은지를 물어보았으며, 두 번째는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마지막은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항이었다. 첫 번째 항목의 경우 평균 3.92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항목의 경우 평균 4.17로 나타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세 번째 항목의 경우에는 평균 3.91로 나타났다. 세 가지 항목의 높은 평균값은 모두 세대 간 갈등을 개인적 차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인식을 했으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3> '세대 간 갈등 인식' 설문 분석 결과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A1	우리나라는 세대 간 갈등이 높다.	3.92	0.692	1	5
A2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17	0.718	2	5
A3	세대 간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3.91	0.845	1	5

2) '사회적 요인' 설문 분석 결과

'사회적 요인'의 설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나 국가발전을 위해 내 개인적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의 평균은 3.13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과 연결된다.'의 평균은 3.34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의 측정항목에서는 다른 관측변수보다는 높은 평균값인 3.61로 나타났다. 국가발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중심내용으로 구성한 사회적 요인변수에서는 개인주의 인식을 갖고 있더라도 '국가의 존립'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보다 '공동체 의식'을 가진 도민들이 많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분석할 수 있겠다.

<표 3-4> '사회적 요인' 설문 분석 결과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B1	사회나 국가발전을 위해 내 개인적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3.13	0.812	1	5
B2	국가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과 연결된다.	3.34	0.948	1	5
B3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3.61	0.802	1	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사회신뢰 요인’ 설문 분석 결과

‘사회신뢰 요인’의 설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 신뢰한다’의 평균은 3.15로 나타났으며,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인지, 안전한 사회인지에 대한 항목의 평균은 각각 2.68과 3.43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평균 수치가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낮은 점으로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분야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에 대한 불신과 개혁 정신에 대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표 3-5> ‘사회신뢰 요인’ 설문 분석 결과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C1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 신뢰한다.	3.15	0.841	1	5
C2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2.68	0.891	1	5
C3	우리사회가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3.43	0.910	1	5

4) ‘경제적 요인’ 설문 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의 설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수준이다’의 평균은 4.10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수준이다’의 항목은 4.12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사회문제 중 청년 취업난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6> ‘경제적 요인’ 설문 분석 결과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D1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4.10	0.783	1	5
D2	제주도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4.12	0.834	1	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 ‘환경적 요인’ 설문 분석 결과

‘환경적 요인’의 설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도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의 평균은 3.70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의 평균은 4.07이며, ‘지금부터 10년 이후, 제주도 환경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의 평균은 3.97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여부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중점으로 살펴본 환경적 요인 변수에서는 설문응답자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10년 후의 환경상황과 환경 보전에 부분의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7> ‘환경적 요인’ 설문 분석 결과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E1	제주도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3.70	0.843	1	5
E2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4.07	0.842	1	5
E3	지금부터 10년 이후, 제주도 환경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3.97	0.848	1	5

6) ‘정치적 요인’ 설문 분석 결과

‘정치적 요인’의 설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나는 정치에 관심이 많다’의 평균은 3.07로 나타났으며, ‘나는 정치적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한다’의 평균은 3.03인 반면, ‘나는 선거에 있어 투표를 한다’ 항목의 평균은 4.22로 다른 관측변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및 정치문제에 대한 참여여부를 중심내용으로 살펴본 정치적 요인변수에서는 정치적 관심은 보통의 평균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참여수준에서 특히 선거 및 투표에 대한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8> '정치적 요인' 설문 분석 결과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1	나는 정치에 관심이 많다.	3.07	0.922	1	5
F2	나는 선거에 있어 투표를 한다.	4.22	0.958	1	5
F3	나는 정치적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한다.	3.03	0.916	1	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4장 실증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사회과학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25.0를 사용하여 각 변수의 특성과 신뢰도 검증(reliability analysis)을 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산출하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제1절 신뢰도 및 타당성 검토

1. 신뢰도 검증

본 연구 모형의 신뢰도와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적 신뢰성 검증(reliability)을 실시하였다. 내적 신뢰성 검증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한 측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경우 동일한 결과 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내적 신뢰도 검증에는 Chronbach's α 값을 사용하여 측정하는데, 사회과학분야에서 0.60 이상일 경우 측정변수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Nunnally, 1978; 이학식, 임지훈, 2017; 김주경, 임은옥, 2019).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Chronbach's α값이 모두 0.7 이상으로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각 측정변수의 Chronbach's α값의 경우, 세대 간 갈등 인식은 0.755, 사회적 요인 0.745, 사회신뢰 요인 0.739, 경제적 요인 0.833, 환경적 요인 0.718, 정치적 요인 0.726 모든 변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4-1> 신뢰도 검증 결과

구분	측정변수	Cronbach's α
종속변수	세대 간 갈등 인식	0.755
독립변수	사회적 요인	0.745
	사회신뢰 요인	0.739
	경제적 요인	0.833
	환경적 요인	0.718
	정치적 요인	0.726

2.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모형 및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상호 독립성을 확보하고 하나의 요인에 높게 적재되는 변수를 줄이기 위해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이겐값(eigenvalue)이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에서 표본의 적합도를 나타나는 KMO(Kaiser-Meyer-Olkin) 값은 0.5 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데, 본 연구의 활용한 변수들에 대한 KMO값은 0.740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2> 측정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사회적 요인	세대 간 갈등 인식	환경적 요인	사회신뢰 요인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1	0.813	0.040	0.037	0.083	0.067	0.044
사회적 요인2	0.789	0.036	0.100	0.125	0.077	-0.031
사회적 요인3	0.709	0.137	0.109	0.190	0.167	0.08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세대 간 갈등 인식1	0.103	0.835	0.084	-0.049	0.021	0.203
세대 간 갈등 인식2	-0.087	0.822	0.155	-0.038	0.027	0.034
세대 간 갈등 인식3	0.221	0.730	0.004	-0.018	0.107	0.165
환경적 요인1	-0.126	0.053	0.820	0.000	0.085	0.053
환경적 요인2	0.170	0.106	0.778	-0.085	0.133	0.024
환경적 요인3	0.271	0.083	0.712	-0.023	0.112	0.155
사회신뢰요인1	0.270	-0.014	-0.026	0.816	0.027	0.028
사회신뢰요인2	-0.045	0.078	0.005	0.799	0.186	-0.015
사회신뢰요인3	0.240	-0.223	-0.089	0.746	-0.032	-0.103
정치적 요인1	0.167	-0.053	0.049	-0.001	0.858	0.009
정치적 요인2	0.133	0.094	0.099	0.072	0.847	0.017
정치적 요인3	-0.009	0.161	0.307	0.175	0.597	0.188
경제적 요인1	0.027	0.141	0.130	-0.001	0.081	0.896
경제적 요인2	0.053	0.224	0.074	-0.074	0.052	0.888
고유값	2.153	2.112	1.976	1.973	1.944	1.747
분산비율	12.668	12.426	11.624	11.604	11.436	10.274
누적분산	12.668	25.093	36.717	48.322	59.758	70.031

KMO=0.740 Bartlett=2701.846 p=0.0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대 간 갈등 인식 요인의 적재량(factor loading)은 0.835-0.730, 사회적 요인은 0.813-0.709, 사회신뢰 요인은 0.816-0.746, 경제적 요인은 0.896-0.888, 환경적 요인은 0.820-0.712, 정치적 요인은 0.858-0.597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활용 변수 간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세대 간 갈등인식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치적 요인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반면 사회신뢰 요인의 다른 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세대 간 갈등 인식,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세대 간 갈등 인식 요인과 경제적 요인은 r=0.372로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대로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은 r=0.109로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 변수 간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면 <표4-3>과 같다.

<표 4-3> 측정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세대 간 갈등 인식	사회적 요인	사회신뢰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치적 요인
세대 간 갈등 인식	1.000					
사회적 요인	.181***	1.000				
사회신뢰 요인	-0.079	.315***	1.000			
경제적 요인	.372***	.109*	-0.073	1.000		
환경적 요인	.238***	.221***	-0.052	.240***	1.000	
정치적 요인	.186***	.277***	.171***	.189***	.335***	1.000

*p<0.05, **p<0.01, ***p<0.00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2절 다중회귀분석

세대 간 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사회적 요인, 사회신뢰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치적 요인을 활용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성별, 나이, 결혼상태, 학업상태, 거주기간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의 경우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였으며, 기준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의 기준변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을 기준변수로 사용하였고, 나이의 경우 '30세 미만'을, 결혼상태의 경우 '미혼'을, 학업상태의 경우 '중학교 졸업'을, 거주기간의 경우 '5년 미만'을 기준변수로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4>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526	0.323		7.813	0.000
사회적 요인		**0.136**	**0.041**	**0.153**	**3.351**	**0.001**
사회신뢰 요인		**-0.092**	**0.039**	**-0.106**	**-2.384**	**0.018**
경제적 요인		**0.260**	**0.036**	**0.314**	**7.302**	**0.000**
환경적 요인		**0.118**	**0.042**	**0.129**	**2.811**	**0.005**
정치적 요인		0.042	0.038	0.050	1.087	0.277
성별	남성	0.062	0.053	0.050	1.184	0.237
나이	30세 이상	0.103	0.089	0.062	1.158	0.248
	40세 이상	0.045	0.088	0.031	0.512	0.609
	50세 이상	-0.016	0.089	-0.011	-0.179	0.858
	60세 이상	-0.014	0.099	-0.009	-0.142	0.887
결혼상태	기혼	-0.019	0.062	-0.015	-0.302	0.763
학업상태	고등학교 졸업	-0.377	0.242	-0.223	-1.558	0.12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대학교 졸업	-0.284	0.236	-0.205	-1.205	0.229
	대학원 이상	-0.360	0.247	-0.176	-1.456	0.146
거주기간	5년 이상	-0.153	0.104	-0.087	-1.477	0.140
	10년 이상	-0.079	0.115	-0.037	-0.687	0.492
	20년 이상	-0.118	0.085	-0.090	-1.383	0.167
R^2		0.207		N	500	
F		7.390		유의확률	0.000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요인, 사회신뢰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신뢰 요인의 경우 β값이 -0.106으로 사회신뢰 요인은 세대 간 갈등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 신뢰도가 높을수록 세대 간 갈등 인식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른 요인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회적 요인에서 '사회나 국가발전을 위해 내 개인적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세대 간 갈등 인식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각하다'는 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세대 간 갈등을 느끼는 정도 또한 높게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며 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세대 간 갈등 인식도 높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 중 경제적 요인은 β값 0.314로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 중 취업난 등의 경제적 문제가 세대 간 갈등 인식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치적 요인의 경우에는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에서도 '성별', '나이', '학업상태', '거주기간'은 세대 간 갈등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향후 제주도민에게 세대 간 갈등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제주도정과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요인, 사회신뢰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사회신뢰요인은 세대 간 갈등 인식에 부(-)의 영향을,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요인의 경우 다른 요인 보다 세대 간 갈등 인식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코로나 19 이후 경제 침체로 인해 청년실업률, 물가 상승 등이 세대 간 갈등 인식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반면, 정치적 요인은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관심의 높고 낮음의 정도가 세대 간 갈등 인식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성별, 나이, 결혼상태, 학업상태, 거주기간의 모든 요인이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제2절 정책 제언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세대 간 갈등 인식 완화 및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첫째,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인식은 단일한 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확대·운영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인식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의 일방향적 소통 또는 권력획득을 위해 편향적으로 발현된 정책결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구성원이 스스로 사회발전 또는 국가발전에 능동적인 사회참여자 또는 정책 지지자로 거듭나기 위한 풀뿌리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기업 운영이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마을공동체의 형성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의 매개로 작용하여, 소지역 단위의 사회 발전을 지역민이 주도하는 이상향을 실천해나감으로써 사회구성원의 갈등인식을 완화시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치·경제·사회 전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사회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실패와 급격한 성장을 경험한 특수성이 있다. 이로 인해 세대의 구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세대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현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에 놓여있다. 갈등이 지속되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를 위해 갈등의 심화 현상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해결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부 역할의 신뢰성과 공정성이다. 대부분의 갈등 양상은 세대 간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제한된 자원 분배와 같은 실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반영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반드시 구현해야 할 것이다(정해식 외, 2018). 다시 말해 갈등 당사자 간 주장하는 정보와 가치관을 명확히 알게 하고, 당사자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여 정책적 과정에 일부분 반영했음을 인식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우선적으로 공적영역에서부터 정책이 확대·운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경제적 요인이 가장 높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박탈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경제위기, 디지털 격차 등 다양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민간의 영역에서는 고용시장이 침체되었고, 고용인원을 축소시키거나 추가 고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기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인구학적 통계 특성이 세대 간 갈등인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모든 사회문제에 대하여 모든 연령층에서 세대 간 갈등 인식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세대 간 갈등 인식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제적 갈등의 요인이 세대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현재의 '고용 없는 경제 성장'의 사회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들의 취업난이 극단적으로 능력 없는 기성세대가 퇴직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인지를 생각해보자. 기성세대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에 투입되고 있기때문에 청년 취업난이 발생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40~50대가 청년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서 청년들의 취업난이 해결된다면 경제적 문제가 해소될 것인가? 이는 또 다른 경제적 갈등을 부추기는 셈이 될 것이다. 세대 간 갈등 현상에 대하여 연령층의 프레임으로만 보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경제적 요인에서 세대 간 갈등은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론적 양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세대 간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의 불안정성을 특징적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민간의 영역에서 이미 고용 없는 경제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공적영역에서부터 여러 대안적 소득보장 장치의 도입 검토, 세대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확대 등의 정책적 반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반국민 중 제주지역민을 대상으로만 세대 간 갈등 인식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주지역민에 한정된 세대 간 갈등 인식의 결과가 타지역 또는 한국 사회에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타지역 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대 간 갈등 인식을 조사하여 보다 타당성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 고 문 헌

강량. (2013). 한국사회 세대갈등 현상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소고. 대한정치학회보, 21(3), 261-289.

강영진. (2000). 갈등분쟁해결 매뉴얼. 서울: 성공회대출판부.

강예선. (2019).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갈등 경험과 해소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갈등의 대안적 해결방식 모색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서울.

강원택. (2004).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출판사.

강응만. (2012). 정책갈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도 원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대학원, 강원.

강철희, 최영민, 김수연 (2012).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행복감과 사회적 신뢰 및 두 요인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2), 57-82.

계봉오. (2015). 인구고령화, 사회경제적 발전, 사회불평등의 관계. 경제와 사회, (106), 41-72.

고혜영, 김주경 (2020). 정책 리터러시가 신뢰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자력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0(1).

구길두. (2021). 지방자치단체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전남.

구자숙, 김명언, 한준 (2000). 기업 조직에서의 세대격차.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3(1), 115-157.

국가인권위원회. (2018). 노인인권종합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권정윤, 김난도 (2019). 소비자학 분야에서의 세대의 개념, 범주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30(5), 77-99.

권중섭. (2013). 근거이론에 따른 농촌마을공동사업상의 갈등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금미, 안상수 (2008). 남성의 성평등 의식 예언을 위한 모형 통합: 사회정체성 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33-155.

김대중. (2019). 사례분석을 통한 사회갈등의 유형별 해소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협상연구, 22(2), 69-102.

김대중, 오영석, 왕서정 (2018).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활용한 공공갈등 유형별 원인과 대응방안의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4), 23-57

김미리, 이선희, 정순둘 (2020). 연령주의가 세대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노인차별과 미디어 이용시간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노년학, 40(6), 1109-1127.

김영곤. (2016). 공공조직 내 세대 간 갈등 유발요인 분석: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영곤, 강제상 (2016). 소방조직 내 한국적 조직문화가 세대 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 행정논총, 54(2), 233-264.

김영평. (1991).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유경. (2021). 사회복지사의 세대갈등이 소진(burnout)에 미치는 영향: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김윤정, 강인, 이창식 (2004). 청년 중년 노년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65-75.

김은성. (2004). 조직구성원의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리더쉽 역할에 관한 연구: 공군 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충남.

김종길. (2005).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2: 접속시대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2005(62), 1-109.

김종호, 이창훈, 신창현 (2004). 환경분야 갈등 유형 및 해결방안 연구.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

김주경, 임은옥 (2019). 원전지역 주민의 원전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경제적 편인 인식과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8(3), 221-246

김주경, 임은옥 (2021). 신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지방행정학보, 18(3), 1-2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지영. (2005). 세대간 갈등과 노인학대.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태일. (2015). 국민연금의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혁 방향. 예산정책연구, 4(2), 31-55.

김태홍 외. (2005).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희삼. (2015). 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 세종: 한국개발연구원(KDI).

나태준, 박재희 (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남궁은하. (2021). 세대갈등 및 생애주기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연령·계층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21(3), 55-69.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上. 서울: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수진. (2017).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노인과 청년의 세대갈등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예명대학원대학교, 서울.

박경숙, 서이종, 장세훈 (2012). 세대 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박군석. (2003). 사회구조 요인과 사회정체성에 따른 상대박탈 경험 및 집합행동: 영호남인의 지역 간 갈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길성. (2013).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박민선. (2020). 청년과 중장년층의 사회적고립이 노인차별행동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재흥. (1991). 한국사회의 노인문제: 교환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5, 1-19.

박재흥. (2001). 세대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

박재흥.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37(3), 1-2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박재흥. (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권력·이념·문화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75-99.

박재흥, 강수택 (2012). 한국의 세대 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 한국사회학, 46(4), 69-95.

박종철, 김인영, 김인춘, 김학성, 양현모, 오승렬, 허문영 (20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박호숙. (2000). 집단갈등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4(1), 183-212.

방하남, 이다미 (2015). 동아시아의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인구학, 38(4), 1-32.

백종선. (2013). 세대 간 직무만족도 분석: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서용석. (2013). 세대 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관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서헌주. (2011). 한국사회 고령화 현상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 민족연구, (48), 25-39.

손의숙. (2005). 청소년 정책참여 수준과 세대 간 차이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서울.

송복. (1994).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서울: 현대문학.

송해룡, 김원제 (2013).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중의 신뢰, 낙인과 낙관적 편향성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3), 162-173.

송호근. (2003).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신진섭. (2020). 밀레니엄 세대의 개인 특성이 조직 내 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서울.

오석홍, 손태원, 하태권 (2002), 조직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오영삼, 남성희, 윤수경 (2014). 내집단의 특성이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통합적 갈등이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2), 424-45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왕서혜, 박상수 (2018). 중국기업 내 세대차이에 따른 세대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문화 차이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41(4), 137-161.

원영희, 한정란 (2019). 세대갈등과 세대통합에 대한 고찰: 노년교육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노년교육연구, 5(1), 63-85.

유병래. (2015). 세대갈등과 문화생활: 시민성 구현과 관련하여. 철학사상문화, (19), 124-178.

Giddens, A., 윤병철·박병래 역 (1991). 사회이론의 주요쟁점. 서울: 문예출판사.

은석. (2019). 복지제도의 확대와 세대갈등.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동연. (2003). 세대정치와 문화의 힘. 문화과학, 33.

이성록. (2007). 비영리 민간조직 갈등관리론. 경기: 미디어 숲.

이성식. (2006). 정보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이영봉. (2012). 조직 내 갈등관리전략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경기.

이인정. (2013). 남북통일과 시민성-세대갈등 통합과 교육적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41), 157-187.

이재광. (2013). 갈등의 사회학: 현대 한국인이 치르는 5개 생활갈등. 이슈 & 진단, (111), 1-25.

이준용. (2015).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배정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충주.

이태준, 정원준 (2016). 에너지 설비 사업 공공 갈등의 거버넌스 효과 증진을 위한 PR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밀양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PR학회, 20(3), 84-112.

이학식, 임지훈 (2017). 구조방정식 모형과 AMOS24. 서울: 집현재

전성우. (1995).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경제와 사회, 26, 10-53

전영평 외. (2005). 사회갈등에 관한 국민의식 및 정책수요 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주진. (2016). 갈등은 기회다. 고양: 개마고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정보성. (2021). 경찰공무원의 세대 차이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세대 갈등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정순둘, 정주희, 김미리 (2016).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4), 5-24

정순둘, 안순태, 김주현 (2019). 회원국 노인인권 모니터링: 노인혐오차별 실태조사. 서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정순둘, 이수영, 박민선, 신보람, 김지연 (2021). 연령집단간 세대갈등의 영역과 원인: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3(3), 229-253.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성근, 류연규, 우선희, 김근혜 (2018).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Ⅴ)-사회갈등과 사회통합(연구보고서 2018).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남, 박숙미 (2002). 한국의 세대관련 연구에 나타난 세대개념의 구분과 세대갈등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일 고찰. 사회과학연구논총, 9, 39-68.

조소영. (2016).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쟁점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45(1), 239-262.

조영태. (2016). 정해진 미래: 인구학이 말하는 10년 후 한국 그리고 생존전략. 서울: 북스톤.

차성란. (2013). 가족돌봄기능의 수행과 세대 갈등. 한국가정관리학회 53차 공동춘계학술대회, 53-78

차성란. (2014). 가족돌봄기능과 관련된 세대갈등 가능성에 대한 고찰.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8(4), 111-133.

최온유. (2022). MZ세대 사무직 근로자가 경험한 기성세대와의 세대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최원기. (2006). 세대격차와 세대갈등에 대한 성찰적 논의, 한국인간관계학보, 11(1), 86-87

최유석, 오유진, 문유진 (2015). 대학생의 노인세대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228-241.

통계청. (2022). 2022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한덕웅. (2002). 집단행동이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문성, 김주경, 양덕순 (202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의 공공갈등 장기화 요인 분석 연구: 제주도민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9(3), 145-189.

한완상. (1991).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에 대한 한 연구. 계간 사상, 통권(8), 248-309.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7.

한정란. (2015). 노인교육론. 서울: 학지사.

함인희. (2013). 세대 갈등의 현주소와 세대 통합의 전망.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2013(1), 47-69.

함정희. (2020). 조직 내 세대갈등으로 인한 직무갈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콜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기.

홍대식. (1994). 사회심리학. 서울: 양영각.

홍은호. (2019). 社會葛藤해소를 위한 警察 情報 力量의 강화방안 硏究: 國政이슈 관련 社會葛藤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북.

황선재, 임훈민 (2020). 사별노인의 경제적 수준별 독거여부 분석, 2004-2017: 소득 및 자산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3(3), 1-27.

황선재. (2022).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사회과학연구(충남대학교), 33(2), 149-172.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Perseus Books.

Amir, Y. (1976). The role of intergroup contact in the change of prejudice and ethnic relations. *Pergamon General psychology series*, 245-308.

Asch, S. E. (1951). Opinions and social pressure. *Scientific American*, *193*(5), 31-35.

Bengston, V., Furlong, M. J., & Laufer, R. (1974). Time, aging and the continuity of social structure: Themes and issues in generational analysis. *Journal of Social Issues*, 30, 1-30.

Blau, P. M.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John Wiley& Son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Brewer, M. B. (1991). The Social Self: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5), 475-482.

Butler R. N.. (1969). Age-ism: Another form of bigotry. *The Gerontologist*, *9*(4), 243-246.

Campbell, D. T. (1965). Ethnocentric and other altruistic motive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Lincoln.

Coser, L. A. (1956).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s. Free Press.

Crosby, F. (1982). Relative deprivation and working wom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ahrendorf. (1958). Toward a theory of social conflict. *Journal of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11, 170-183.

Davis, J. H. (1959). A formal interpretation of the theory of relative deprivation. *Sociometry*, *22*(4), 280-296.

Dent, Harry S. (2014). The Demographic Cliff: How to Survive and Prosper During the Great Deflation of 2014-2019. Portfolio.

Deutsch, K. W. et al. (1957).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Duncan, W. Jack. (1981). Organizatinal Behavior,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Eisenberger, R., Cummings, J., Armeli, S., & P. Lynch. (1997).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discretionary treatment,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5), 812-820.

Ellemers, N. (1993). The Influence of Socio-structural Variables on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4*(1), 27-57.

Emerson, R. M. (1972). Exchange theory: A psychological basis for social exchange. Boston: Houghton-Miffli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Festinger, L. & Carlsmith, J. M. (1959). Cognitive Consequences of Forced Complia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8*(2), 203-210.

Freud, S. (1938). Constructions in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19, 377-387.

Giddens, A. (2006). Modern sociology: Ŭlyu Ch′ ULP′ ANSA.

Gilbert Abcarian and Monte Palmer. (1974). Society in Conflict: An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 San Francisco: Canfield Press

Higgs, P., Gilleard, C. (2010), Generational conflict, consumption and the ageing welfare state in the united kingdom. *Ageing and Society*, *30*(8), 1439-1451.

Hogg, M. A., Abrams, D., Otten, S. & Hinkle, S. (2004). The Social Identity Perspective: Intergroup Relations, Self-conception, andSmall Groups. *Small Group Research*, *35*(3), 246-276.

Hogg, M. A. (2013). Intergroup relation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533-561.

Holsti. K. J. (1977). International Politcs: A Framework for Analysis. Prentice-Hall, 3rd ed.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Ipsos. (2021). Culture wars around the world: how countries perceive divisions. (https://www.ipsos.com/en/culture-war-around-the-world)

Jackson, J. W. (1993). 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 A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Psychological Record*, *43*(3), 395 - 415.

Kertzer, 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1), 125-149.

Lan, Z. (1997). A Conflict Resolution Approach to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7*(1), 27-3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Lewin, K. (1948). Resolving social conflicts: selected papers on group dynamics. New York: Harper.

Mannheim, Karl.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K. Mannheim,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276-32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Nash, Laura L. (1978). Concepts of Existence: Greek Origins of Generational Thought. *Daedalus*, *107*(4), 1-21.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Obershall, A. (1978). Theories of Social Conflict. *Annual Review of Sociology*, *4*, 291-315.

Pinquart, M., Wenzel, S., & Soresen, S. (2000). Changes in Attitudes among Children and Elderly Adults in Intergenerational Group Work. *Educational Gerontology*, *26*(6), 523-540.

Pondy L. R. (1967). Organizational Conflict: Concepts and Models. *Administrative Sience Quarterly*, *12*(2), 296-320.

Riley, P. (1985). Strategy: conflict or collaboration. *Mélanges Pédagogiques*, 91-116.

Runciman, W. G. (1966).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A study ofattitudes to social inequality in twentieth century Engla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ousseau, D. M. (1988). The Construction of Climate in Organizational Research. In Cooper C. L. & Robertson I(ed.),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New York: Wiley, pp.139 - 158.

Smith, H. H., Spears, R., & O. Martin. (1994). People like us: The influence ofpersonal deprivation and group membership salience on justice evalu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3), 277-299.

Stephan, W. G. & Stephan, C. W. (1985). Intergroup anxiety. *Journal of Social Issues*, *41*(3), 157 - 17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tephan, W. G. & Finlay, K. (1999). The role of empathy in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55*(4), 729 - 743.

Stephan, W. G., Stephan, C. W., & W. Gudykunst. (1999). Anxiety inintergroup relations: A comparison of anxiety/uncertainty managementtheory and inte grated threat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Intercultural Relations*, *23*(4), 613-628.

Stouffer, S. A., Suchman, E. A., Devinney, L. C., Star, S. A., & R. M. Jr.Williams. (1949). The American soldiers: Adjustment during army life(Studies in social psychology in World War 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Tajfel, H. (1974).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r. *Social Science Information*, *13*(2), 65 - 93.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Monterey: Brooks/Cole.

Thomas Hobbes. (1651).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

Thomas, K.W. (1976).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M.D. Dunnette, Ed., Handbook of Industrial &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889-891.

Thomas, K. W., & Schmidt, W. H. (1976). A survey of managerial interests with respect to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9*(2), 315-318.

Townsend.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London: Allen Lane & Penguin Books.

Vala, J., Pereira, C., & A. Ramos. (2006). Racial prejudice, threat perceptionand opposition to immigration: A comparative analysis. *Portuguese Journal of Social Science*, *5*(2), 119-140.

Weber, M. (1968). On charisma and institution build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hittaker, J. O. (1966). Introduction to Psychology. Philadelphia: W.B. Sounder Co.

Wilner, D. M., Walkley, R. P. & Cook, S. W. (1952). Residential proximity and intergroup relations in public housing proj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8(1), 45 - 6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 Focusing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itizen' Perception Survey -

SuJin KA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rapid changes in politics, economy, and social history over the past century, As a result, while achieving highly compressed economic growth, social conflicts related to 'inequality' and 'fairness' occurred. In the process, various generations emerged,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cohesion of each generation according to values, lifestyle, and interests, social problems were naturally resolved, or they appeared intensified as social conflicts.

In addition, Korean society has recently experienced an unexpected phenomenon called Corona 19 without solving social problems such as rapid aging, and has produced complex social problems. As a result, the difference in position between generations on the solution of social problems from the individual domain to the national domain was clearly revealed. This movement will intensify into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act as an element that hinders social integration.

As such,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for the second time an era in which the industrial structure, national view, and individual values are rapidly changing, experiencing not only social problems hidden behind remarkable growth, but also recent demographic changes and the COVID-19 pandemic.

Therefor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situation of the times that Korean society is facing, It aims to remind people that they are a 'commo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destiny′ that must wisely deal with today′s ′delay in growth′, even if several generations, from the older generation to the MZ generation, have different interests. To this end, the results of a survey targeting 500 Jeju residents were us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For the research model, ‘social factors’, ‘social trust factors’, ‘economic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and ‘political factors’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s a dependent variable, ‘intergenerational conflict awareness’ was set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social factors, economic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Among them, economic factors were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It was found that social trust factor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Based on findings, we make policy suggestions to alleviate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achieve social integratio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